# SUGGESTIONS FOR PRACTICES OF HOSPITABLE WORSHIP FOR COUPLES OVER 60 YEARS OF AGE IN THE CONTEXT OF LATE-LIFE MARITAL CONFLICT

# 60대 이상의 노년기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에 대한 연구

A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Yeung Hae Ryu

May 2019

Copyright © 2019 by Yeung Hae Ryu

This Professional Project completed by

**Yeung Hae Ryu**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Yong Hwan Kim,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9

ABSTRACT

SUGGESTIONS FOR PRACTICES OF HOSPITABLE WORSHIP FOR COUPLES OVER 60 YEARS OF AGE IN THE CONTEXT OF LATE-LIFE MARITAL CONFLICT

by

Yeung Hae Ryu

In the interest of the marital conflict of Christian women in their 60s as the phenomenon of the rapid increase of elderly divorces in Korean society, this project began with the idea of how to overcome the marital conflict in their 60s and to have a happier and richer old age, as the elderly divorces soared in Korean society.

I interviewed seven participants in depth to find the phenomenological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60-year-old Christian women suffering from marital conflict. In-depth interviews resulted in four categories of their experiences, and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were interpreted as feminist theology. The four categories derived were patriarchal repression, distorted faith, limitations of pastoral care, ignorance and lack of dialogue. I introduced hospitality theology to heal these four categories of conflicts and presented hospitality couple worship service for the 60s who can apply and experience it. It is hoped that the Christian women in their 60s will overcome marital conflict and the married couple will be healed and transformed into a welcoming family through the hospitable couple worship service.

KEYWORDS: 60s Christian Women, Marital Conflict, Feminist Theology, A Theology of Hospitality, Hospitable Worship for Couples over 60s

국문 초록

60대 이상의 노년기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에 대한 연구

by

Yeung Hae Ryu

본 논문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 안에서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면서 60 대 기독교 여성의 부부 갈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60 대의 부부가 어떻게 하면 부부 갈등을 잘 극복하여 행복하고 더 풍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부부 갈등을 겪는 60 대 기독교 여성의 경험의 현상학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7 명의 참여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심층 면담 결과 그들의 경험을 네 가지 범주로 도출하였고, 면담 내용의 결과를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도출된 4 가지 범주는 가부장제적인 억압, 왜곡된 신앙, 목회 돌봄의 한계, 무시와 대화 부재였다. 이러한 4 가지 범주의 갈등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환대 신학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60 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안한 60 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해 60 대 기독교 여성이 부부 갈등을 극복하고 부부가 치유되어 환대적 가정으로 회복되어 60 대 부부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KEYWORDS: 60 대 기독교 여성, 부부 갈등, 페미니스트 신학, 환대 신학, 60 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

# SUMMARY

The elderly divorce is increasing with the time when the baby boomer generation(born in 55-1963), who led the growth period of Korea in the 80s and 90s, is retiring, and jol-hon(graduated from marriage), maintaining a marriage relationship but living their own lives has become a social issue. As a woman's social status improves and her average life expectancy is extended, jol-hon(graduated from marriage) is a new form of marriage maintenance not to miss out on both the convenience and the freedom of life that can be gained by maintaining a marital relationship. In this context, I found out how Christian women in their 60s are experiencing a marriage that has entered their old age. Christian women in their 60s were experiencing repression and discrimination in the indifference of the Korean church and the family with a patriarchal male-centered structure. I have been able to meet women who have maintained their faith and marriage for more than 30 years, but have been stagnant rather than going through a continuous process of maturity due to distorted faiths, limitations and distrust of the care of the pastoral church and the disconnect of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for this reason.

The project brought in four categories, nine themes, and twenty-four topics by in-depth interviews of the challenges faced by the Christian women in their 60s. By interpreting these results from the feminist theology perspective, we found that Christian women in their 60s have lived in patriarchal oppression, have internalized it, and have been experiencing the difficulties of ignoring and lack of dialogue among all project participants. This project examines the difficulties of marital conflict experienced by Christian women in their 60s and how Christian faith affects marital conflicts. And through hospitality theology, I presented a model of hospitality marriage worship services for the 60s that heals the marital conflict and practice hospitality.

The originality of this project is that I heard stories from Christian married women in their 60s who have been living their faith for more than 30 years through qualitative studies, analyzed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theology, and offered a solutions in hospital marriage worship services for those in their 60s who can be applied by themselves or their couples. Through this project, I hope that the Korean church will make epistemological changes and become more active in the ministry of hospitality and respect for women and couples in their 60s.

# 국문 요약

80-90 년대 한국의 성장기를 이끌었던 베이비부머(1955~1963 년생)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기와 맞물려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졸혼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졸혼(卒婚)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뒤늦게라도 내 인생을 살겠다'라며 부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의성과 자유로운 삶 추구, 이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싶지 않아 새롭게 등장한 결혼 유지 형태이다. 이러한 세태속에 60 대 기독교 여성들은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60 대 기독교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한국 교회의 무관심 속에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30 년 넘게 신앙생활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왜곡된 신앙관과 목회 돌봄의 한계와 불신 그리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단절로 계속적인 성숙의 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여성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는 60 대 기독교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심층 면담함으로써 4 개의 범주와 9 개 주제군 그리고 24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60 대 기독교 여성들이 가부장제적인 억압 속에서 살아왔고 이를 내면화 시켜가고 있었으며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서 무시와 대화 부재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는 이렇게 60 대 기독교 여성이 경험하는 부부 갈등의 어려움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기독교 신앙이 부부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환대 신학을 통해 부부 갈등을 치유하고 환대를 실천하는 60 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독창성은 30 년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해 온 60 대 기독교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페미니스트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들 자신과 부부에 의해 적용이 가능한 60 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에서 그 해결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교회가 인식론적 전환을 이루어 60 대 여성과 부부들을 향한 관심과 존중 그리고 환대의 사역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Page

I. 서론
Introduction ....1

A. 문제 제기
Presentation of Problems ....1

B. 논지와 토론
Thesis and Discussion ....2

C.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Definitions of Terms ....11

D. 청중
Audiences ....13

E.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Range and Limitations of Project ....14

F.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
Originality and Contribution of Project ....14

II.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
The Method and Procedur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17

A. 연구 참여자
Research Participant ....17

B. 연구 방법
Research Method ....19

C. 연구 절차
Research Procedure ....21

D. 연구 결과 및 해석
Research Result and Interpretation ....23

1. 가부장제적인 억압
Oppression of Patriarchy ....28

2. 왜곡된 신앙
Distorted Faith ....34

3. 목회 돌봄의 한계
Limitations of Pastoral Care ....40

4. 의사소통의 단절
Disregard and Absence of Talk ....44

III. 환대 신학
Theology of Hospitality....50
A. 환대란 무엇인가?
What is Hospitality?....50
B. 환대 신학의 적용
Application of Theology of Hospitality....53
1. 환대적 삶: 억압에서 해방으로
Hospitality Life: from Oppression to Liberation....55
2. 환대적 삶: 현실 회피에서 적극적 현실 참여로
Hospitality Life: from Avoidance to Reality....59
3. 환대적 삶: 지엽적 돌봄에서 통전적 돌봄으로
Hospitality Life: from Limitations of Traditional Ministry to Comprehensive Ministry....62
4. 환대적 삶: 단절에서 공감과 연민, 존중으로
Hospitality Life: from Disregard and Absence of Talk to Sympathy and Compassion, Respect....64

IV. 환대적 부부 예배
Hospitable Worship for Couples....69
A. 환대적 부부 예배란 무엇인가?
What is Hospitable Worship for Couples?....69
B. 60 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
Hospitable Worship for Couples over Sixties....72
1. 해방으로의 환대적 부부 예배
Hospitable Worship for Couples toward Liberation....75
2. 적극적 현실 참여로의 환대적 부부 예배
Hospitable Worship for Couples toward Reality....78
3. 통전적 돌봄으로의 환대적 부부 예배
Hospitable Worship for Couples toward Comprehensive Ministry....80
4. 공감과 연민, 존중으로의 환대적 부부 예배
Hospitable Worship for Couples toward Sympathy and Compassion, Respect....82

V. 결론 및 제언
Conclusion and Suggestion....86

부록: 연구 참여 동의서
Appendix: Informed Consent Form....89

참고 문헌
Bibliography....91

# Chapter I
# 서론(Introduction)

## A. 문제 제기

나는 그동안 가정 사역이나 상담의 현장에서 30-50대 부부의 이혼은 많이 접하였지만 황혼 이혼에 대한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까운 친구가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같은 교회 친분이 있던 한 권사도 황혼 이혼을 하게 되어, 기독교인인 두 사람의 이혼이 나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의 이혼으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이혼에 대한 고정 관념이 깨지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다면 이혼에 대한 위기는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워온 성경적 가치관에 따르면 이혼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로를 연민적 시선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60대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60대 기독교 여성의 삶과 부부 갈등은 어떠한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평균 수명 증가와 더불어 자녀가 부부의 품을 떠난 후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1] 최근 노년기의 부부를 중심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삶을 의미하는 졸혼[2]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될 만큼 누적된 부부 갈등이 노년기의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

[1] 혼인 지속 기간 20 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 년 미만 이혼이 22.4%를 차지하였다. 평균 이혼연령 또한 남자 47.6 세, 여자 44.0 세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다 (통계청 2017 혼인·이혼 통계자료 참조).

[2] 일본어로는 소츠콘(卒婚 : そつこん). 2004 년 일본의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 책 *졸혼을 권함*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한 후, 일본에서는 유명인이 잇따라서 '졸혼'을 선언하는 등 확산하는 추세이다 (시사저널, 2015, 5, 23 참조).

변화순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황혼기 부부'에게서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젊었을 때는 뭣 모르고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자식을 다 키우고 난 이제는 권위적인 남편과 함께 사는 것 보다 자신의 인생을 찾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부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3]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그 동안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서 참고 살았는데 여성의 경제력이 생김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여성들은 남은 생을 위하여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또한, 가족법의 개정으로 여성의 권리가 인정되고 자녀 양육권과 이혼 시 부부의 재산 분할권 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4]

노년기 부부들은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자녀가 떠나고 둘만 남은 시점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배려와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부장제 하에서는 이러한 부부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5] 따라서 여성의 경우 부부 관계가 불평등한 가부장제 하에서는 더 이상 남은 생이 행복할 수 없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6] 이와 같이 질적으로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60대 기독교 여성의 부부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한 몸으로 부름 받은 부부가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서로 환대하며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B. 논지와 토론

본 프로젝트를 통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60대

---

[3] 변화순, *가족정책으로 바라본 여자 남자 이야기* (파주: 교육과학사, 2010), 193.

[4] 변화순, 193-4.

[5] 윤덕희,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노인들의 부부 관계에 관한 연구" (PhD diss.,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8), 1.

[6] 윤덕희, 2.

기독교 기혼 여성을 심층 면담한 질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여 남은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목회 상담학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목회 상담자가 보다 효율적인 상담 개입을 할 수 있는 핵심 요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7]

먼저 60대 기독교 여성이 해당되는 노년기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기는 그동안 쌓여온 갈등을 해결하고 부부 관계의 역할과 권력등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기로 노년기 부부 갈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8] 이에 대한 연구로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미국 메트라이프 노년 사회연구소(MMI)가 공동 발표한 *한국 베이비부머 2년*(2010~2011) *추적 연구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베이비부머 부부들이 평균 2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47%에 달하는 절반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3분 1정도가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베이비부머 부부의 갈등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이혼 고려 비율이 높고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 주로 회피적 대처를 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낮았다.[9] 부부 갈등 발생시 회피적 대처와 같은 적절하지 못한 대처가 지속된다면 부부간 갈등은 점차 누적되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한국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베이비부머는 한국의 고도 성장의 주역들이다. 이들은 역사의 과도기적 시대의 세대로 부모 부양과 자녀에 대한

---

[7] Jay E Adams,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Bible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혼·재혼*, trans. 송영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39.

Jay E Adams 는 동반자 관계를 연합 혹은 관계속으로 들어가는 자로 생각과 목표, 계획과 노력에서 친밀히 연합한 관계라고 하였다.

[8] 이선미,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PhD diss.,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1.

[9] 한경혜 et al.,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지평 (2010-2012)-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1 차년도 보고서," in *베이비부머 패널연구 심포지움* (서울,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 & MetLife Korea Foundation, 2011), 20-2.

양육 책임 때문에 정작 자신의 노후는 보장받지 못하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이다. 또한, 늘어난 수명으로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 노년의 생활을 해야 한다.[10] 그러나 외환위기와 국제 사회의 변화로 제대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노후에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다.[11]

베이비부머 부부와 근접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은퇴자 부부가 있다. 성영모에 따르면 은퇴자 부부의 특징은 은퇴 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부부 갈등이 은퇴 후에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현상도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면으로 재적응 과정으로 보며 은퇴 후 경제적 변화, 권력 구조 변화, 가사 노동 분담 변화, 성 생활 변화 등이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신앙생활이 노년 부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은퇴 후 부부 상담시에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상담 계획과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12] 이와 같이 노년기에 부부만 지내면서 겪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기존의 체계에 익숙한 부부일수록 적응의 어려움이 많고 둘만 지내는 환경에서의 부부 관계의 질이 노년기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환경에서 두 사람이 원만하고 친밀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느냐가 노년기 부부 관계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13]

변화순은 한국 노년기 부부 관계의 특징이 첫째, 가부장적 부부 관계로 지금까지 남편이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아내는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져왔지만 노년기에는 아

---

[10] 김미혜 et al., "베이비부머의 부부 관계 특성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예비노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 17, no.3 (October 2012): 212-3.

[11] 한경혜 et al.,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지평 (2010-2012) -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1차년도 보고서*" in 베이비부머 패널연구 심포지움 20-2.

[12] 성영모, "은퇴자 부부들의 부부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PhD diss.,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3), vii-iii.

[13] 임송은, "도시 단독가구노인의 부부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부부 관계유형을 중심으로" (PhD diss.,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2.

내의 역할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하거나 악화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수정된 가부장적 부부 관계는 부부간에 서로 협조적이고 서로 이해하며 각자의 역할에 유연성을 보여주고 노후에 두 사람만이 남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평등한 부부 관계는 가부장적 요소인 억압과 차별이 없고 결혼 초기부터 서로 협조적이고 상의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서로 연합이 잘 되어 노년기에 더욱 견고한 부부 관계가 된다.[14] 이상과 같이 노년기 부부 관계는 가부장적 부부 관계를 탈피하고 평등한 부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노후에 행복한 부부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인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60대 기독교 여성의 삶은 어떠한가? 그들은 가부장제의 문화인 억압과 순종을 강요당하고 희생적인 삶을 미덕으로 살아가고 있다.[15] 이러한 가부장제는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도 어긋난다. 김세윤은 에베소서 5장 21-31절의 말씀이 가부장적 부부 관계를 지탱하기 위해서 잘못 쓰이고 있다며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어느 남편이 이 본문에 쓰인 '머리'라는 개념과 '복종'이라는 표현을 붙들고 자기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한다면, 그는 그 행위로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신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사랑, 곧 자기 희생을 거부하면서 아내에게 자기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은 죄의 본질입니다.[16]

이와 같이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의 의무를 저버린 자기 주장이며 죄라고 말하고 있다. 강남순은 기독교내에서 남성 중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부장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남순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차별

---

[14] 변화순, "여성노인의 부부 관계," *노인복지정책연구* vol. 14 (June 1999): 205-37.
[15]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 영성, 생명*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301.
[16]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서울: 두란노, 2016), 102.

과 억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회 내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고 남성들과 다르게 적용되는 특정한 가치가 있으며 이것의 위험을 지적하였다.[17]

특히 유교적인 가족 관계에서 여성에게만 돌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남성도 가정에 대하여 여성과 마찬가지로 관심과 배려뿐만 아니라 양육까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교적인 가족 이해로는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평등성과 독립성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보았다.[18] 벨훅스(Bell Hooks)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에서 소통을 중시하는 페미니즘을 강조하며 페미니즘을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으로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모두가 성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고 모두 페미니즘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페미니즘이 반대하는 것이 남성 중심 주의이지 '남자'가 아니며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는 해방 운동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페미니즘이 여성 우월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 주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며 모든 차별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19] 이와 같은 벨훅스(Bell Hooks)의 주장과 강남순이 말하는 신적 현실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페미니스트 신학 비전 사이에 일치성이 있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강남순의 페미니스트 신학적 관점은 기독교 여성과 남성 모두가 잘못된 고정관점으로 굳어진 자신의 모습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20] 따라서, 페미니스트 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진

---

[17]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 영성, 생명*, 300.

[18]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4), 207.

[19] Bell Hooks, *Feminism is for Everybody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trans. 이경아 (경기: 문학동네, 2000), 45, quoted in 강준만,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8), 367-8.

[20]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259.

정성 회복'이며 이러한 진정성(authenticity)은 인간이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경험하는 상태로 보는 것이다. 페미니즘이 가부장제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저항이라면 페미니스트 신학은 신학에서의 '저항담론'으로써 존재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신학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21] 이상과 같이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에서 부부 갈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유순희는 노년기의 부부 갈등에서 부부간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갈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았다. 부부 갈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갈등을 통해 부부가 연합되어 결속력이 생기지만 부정적이 되면 서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불안 스트레스 등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하면 이혼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22] 따라서 부부 갈등을 그때 그때 해소하여 시비나 다툼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부부 갈등의 합의점을 찾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3] 변화순도 부부 갈등 발생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부작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갈등은 개인간 혹은 집단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되고, 정도에 따라 결속력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또는 관계가 악화되면 적대감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상대방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 혼자 삭히는 정도에서 시작해, 심하면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는 역동적인 개념이다.[24]

따라서 갈등 발생시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켄산드(Ken Sande)는 *결혼은 갈등이다*에서 갈등과 회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해 준다.

---

[21]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25.
[22] 유순희, "황혼이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PhD diss.,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6), 11.
[23] 정태기, *위기과 상담* (서울: 크리스찬치유목회연구원, 2005), 145.
[24] 변화순, *가족정책으로 바라본 여자 남자 이야기*, 210.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갈등을 통해 친밀감과 신뢰감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섬기며 부부간의 갈등이 심할 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갈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엡 4:13). 따라서 갈등을 불편한 것으로 보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통해 부부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갈등은 부부의 남은 생을 전인적으로 건강한 부부 관계로 향하게 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25] 정석규는 갈등과 화해에 대한 성서적 시각을 강조함으로써 갈등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성서의 갈등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성서적 시각으로 해결하고 화해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26] 이러한 신학적 관점으로 남성과 여성이 갈등을 통해 서로의 다름과 특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부 관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27] 이상과 같이 부부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서로 존중과 수용 그리고 헌신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자녀가 떠나고 남은 생을 함께 보내는 노년기 부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되며 자아통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갈등 관계인 부부가 노년기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은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숙의 단계인 자아통합(Ego integrity)의 시기로 보았다. 자아통합이란 지나온 인생이 비록 후회나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난 세월에 대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

[25] Ken Sande, *Peacemaking for Family 결혼은 갈등이다*, trans. 이명숙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4), 59.

[26] 정석규, *구약성서로 읽는 갈등과 화해* (서울: 한들출판사, 2010), 5-8.

[27] 강호숙, *여성이 만난 하나님* (서울: 넥서스, 2016), 216.

을 재해석하며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므로 남은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28]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의 자아통합과 유사한 가족 치료 이론으로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의 사회 발달 이론이 있다. 에릭슨(Erik H. Erikson)은 정신 분석적 가족 치료 이론의 시초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인간 발달이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욕에 기인한다고 보는 반면에 에릭슨(Erik H. Erikson)은 사회 환경 속에서 인간의 정체감이 형성된다고 보고 정체감 이론을 발표하였다.[29] 이런 정체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개인의 일생을 8단계로 이루어 진다고 보고 각 단계는 전 단계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또한, 각 단계는 극복해야 할 심리적 과제가 있고 각 단계별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 단계의 정체감이 건강하게 형성되면 다음 단계의 발달이 잘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30] 각 단계 마다 자아 정체감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발달 위기를 겪게 되는데 정체감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의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주위 사람들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체감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31] 에릭슨(Erik H. Erikson)의 발달 단계 중 60대 부부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해당하는 8단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노년기는 자아통합 대 절망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65세 이후의 생으로 보고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지나온 삶이 비록 힘들고 실패한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자아통합의 삶이다. 이에 반해 절망(Despair)은 죽음에 대한 두려

---

[28] Howard Clinebell, *Well Being 전인건강,* trans. 이종헌 and 오성춘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1995), 339.

[29] 김용태, *가족 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2000), 203.

[30] 박순오, "하나님의 형상론에서 본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목회상담신학적 고찰" (PhD diss.,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2), 23.

[31] 김용태, 220.

움으로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해 절망하고 남은 삶이 짧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32] 에릭슨(Erik H. Erikson)은 노년기 자아통합의 덕목을 지혜라고 하였다. 지혜란 남은 생은 수용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지혜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남은 생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이다.[33] 자아통합으로 이룰 수 있는 노년기 발달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계속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지금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여 적응하는 삶을 찾게 된다. 둘째, 자신의 삶의 변화에 따른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적응하고 수용하게 된다. 배우자의 상실이 가장 적응이 힘들다고 한다. 셋째,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나온 세월에 후회 실패 좌절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넷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죽음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자아통합이 된 사람은 죽음을 인생의 한 과정으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 다섯째,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기능이 저하되는 것에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노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아통합이 잘 된 사람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34] 노년기 발달 과정 가운데 죽음의 수용은 중요한 과제이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자아통합을 이룬 노년기의 과제이며 자아통합이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교적 죽음을 쉽게 수용하게 된다.[35] 이러한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되고 에릭슨(Erik H. Erikson)은 이를 '종교적 인간'이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한다. 결국 에릭슨(Erik H.

[32] 김용태, 225.
[33] 박순오, "하나님의 형상론에서 본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목회상담신학적 고찰," 28-9.
[34] 박순오, 42-3.
[35] 박순오, 40.

Erikson)의 자아통합은 궁극적으로 신앙에 귀의한 삶으로 볼 수 있다.[36] 이와 같이 자아통합은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신체적 노화를 인정하는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노년기에 자아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60대 기독교 여성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심층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분석했다.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된 60대 기독교 여성들의 경험을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을 교회가 연민적 시선으로 함께 고통하며 위로하기 위해 환대 신학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환대 신학이 어떻게 60대 기독교 여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 살펴보고 실천의 장으로 환대적 부부 예배를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하여 노년기의 자아통합이 이루어져 60대 기독교 여성이 노년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부가 함께 드리는 부부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C.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1) 가부장제

가부장제는 페미니즘의 중심이 되는 용어로 가정 내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아버지들이 지배하는 것을 뜻하며 모든 조직에 근간을 이루는 원리이다.[37] 이러한 가부장제는 여성들이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약자로서의 위치가 되고 이로 인해 남아 선호 사상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나타나며 모든 것이 남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성은 가사나 육아 등의 일에 국한되

[36] 박순오, 41.

[37]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4.

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겉으로는 수정되고 평등해진 것 같지만 이러한 가부장적 불평등이 아직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38] 유교 영향권에 있는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부장적인 가정이 60대 이상의 노년기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본 연구에 도움이 된다.

2) 페미니스트 신학

페미니스트 신학은 지금까지 전통 신학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신학으로 이루어진것에 대한 '저항담론'이 된다. 페미니스트 신학은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존재'를 체험하는 '진정성'(authenticity) 회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신학이다.[39] 따라서 페미니스트 신학은 가부장제에 대한 분석과 여성의 억압과 차별의 경험에 대한 여러 형태를 비판하고 해방하며 이러한 해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60대 부부 갈등의 중심 이론인 가부장제와 맥을 같이 함으로 본 프로젝트에 도움이 된다.[40]

3) 억압

억압은 페미니즘의 중심 용어이며 강요된 종속으로 언제나 희생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여성에게 해당된다. 가부장제적 억압에 희생이 된 여성이 또 다른 억압자가 되는 모순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의 억압은 다른 종류의 역압 즉, 인종 차별, 계층 차별 등의 억압과 달리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심지어 종교적 영역에까지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41]

4) 부부 갈등

부부 갈등이란 부부가 서로의 욕구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38]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5.
[39]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25.
[40] 강남순, 31.
[41]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8-9.

갈등도 긍정적으로 해결하면 부부가 더욱 연합하고 친밀해지지만 부정적이 되면 상대를 비난하게 되고 극단적인 관계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부 갈등은 서로의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적인 차이로도 나타나는 당연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본 프로젝트의 대상인 60대 이상의 노년기의 부부 갈등은 그 동안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행복을 위해 부부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결함으로써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42]

D. 청중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청중은 프로젝트 참여자와 공통의 경험을 지닌 60대 기독교 여성과 배우자들이다. 그들이 프로젝트 참여자의 경험을 새롭게 재조명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수용함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청중은 노년 세대(old generation) 사역을 하는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본 프로젝트의 페미니스트 신학적 관점을 통해 60대 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상담학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상담 영역에 머물고 있는 나 자신이나 목회 상담자가 보다 효율적인 상담 개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유용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젊은 자녀 세대들로 60대의 부모들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본 프로젝트를 통해 깨닫고 올바른 신앙관과 결혼관의 정립과 의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획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42] 박하영, "남녀노인의 성역할태도 유형이 부부 관계 만족도와 부부 갈등 수순에 미치는 영향" (PhD diss.,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12.

E.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프로젝트는 부부 갈등을 겪는 60대 기독교 여성들의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요인을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페미니스트 신학과 환대적 부부 예배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부부 갈등의 모든 사항을 다루지는 않는다. 질적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신학의 핵심인 가부장제에 의한 부부 갈등과 신앙이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환대 신학으로 치유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가부장제 하에서 60대 기독교 여성의 심리적 경험과 현상을 탐색한 질적 연구로서 부부 갈등의 경험이 있는 60대 기독교 여성 7명를 프로젝트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질적 혼합 연구를 시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60대 기독교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남성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근거로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 여성과 비기독교 여성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노년기 부부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F. 이 논문의 독창성과 공헌

황혼 이혼은 고령화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남성의 은퇴 시기에 제2의 인생을 찾겠다는 여성이 늘면서 증가하여 한국 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상이다. 60대 부부 갈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덕희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노인들의 부부 관계에 관한 연구, 이선미의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나예원의 노년기 부부 결혼 및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배우자 지지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연표

의 노년기 결혼 불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 자료들은 노년기 부부 갈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주지만 페미니스트 신학과 환대 신학의 관점 그리고 실천 신학의 관점에서 예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 갈등을 겪는 60대 기독교 여성의 경험을 통해 그들 의식 속에 뿌리내린 가부장적 통념과 질적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신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환대 신학으로 치유하고 경험의 장(場)으로 60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를 제시하는 점에서 독창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젝트는 60대 기독교 여성들을 심층 면접하여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하고 60대 기독교 여성을 위한 목회적 대안으로 목회적 돌봄의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심층 면접을 통하여 내면의 아픔과 사회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삶을 재조명하게 한다. 또한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목회적 돌봄의 대안을 제시하고 노년기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영역에서 노년기 상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60대 여성이 겪는 부부 갈등과 극복의 요인을 밝히기 위해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였는지, 경험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는 개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부부 갈등을 다루지만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부부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노년기의 전인적 자아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고령화 사회로 길어진 수명과 연장된 부부 관계, 누적된 부부 갈등으로 인한 황혼 이혼의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60대 부부만을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가정예배에 대한 선행 연구는 있었지만 부부 예배라는 새로운 용어는 본 프로젝트에서 처음 시도한 점이다. 넷째,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60대 부부만을 위한 부부 갈등을 다루었지만 연구 결과 60대 부부뿐만 아니라 전 세대 부부에게도 환대적 부부 예배가 적용될 수 있어 이러한 환대적 부부 예배가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출발점을 제시하는 데 이 프로젝트의 공헌이 있다고 본다.

## Chapter II
##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

### A. 연구 참여자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60 대 기독교 기혼 여성으로 30 년 이상 신앙생활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교회의 지인의 소개를 받아 스노우볼 표본 추출(snowball sampling)을 통해 처음 대상자를 조사한 후 대상자의 소개를 받아 다음 대상자를 표본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43] 다수의 프로젝트 대상자들에게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그 중에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60 대 기독교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동의는 동의서를 통해 얻었는데, 이 프로젝트와 관련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한 후 프로젝트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동의서에는 학교에 대한 정보와 담당 교수의 연락처를 공개함으로써 의문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학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비밀 보장과 함께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대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참여자에 대해 익명성을 추구하였고, 참여자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신상 기록을 제한적으로 기술하였다.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면담할 때는 그 면담 내용을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녹음을 하지만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파기할 것을 약속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은

---

[43] Leo A. Goodman, "Snowball sampling,"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vol. 32, no. 1 (August 1961): 148 – 70, quoted in 한국어 위키백과, "스노우볼 샘플링," last modified September 22, 2017, https://ko.wikipedia.org/wiki/스노우볼_샘플링.

"스노우볼 표본추출이란 실험 참가자를 뽑는 비확률적 샘플링 기법을 말한다. 소개의 소개를 받아 계속 연구대상이 표본으로 선택되는 비확률적 샘플링으로써, 모집단에 속하는 연구대상을 찾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

삭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위해 면담 참여시 참여자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어느 때든지 프로젝트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설명하였다. 만약 프로젝트 참여 철회를 원할 경우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면담 장소는 나의 개인 사무실로 정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미리 약속을 잡아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 참여자의 개인 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 '기관 윤리 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번호:2018-009)을 얻어 연구 절차를 밟아 나갔다.

참여자 A 는 모태신앙으로 37 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목사의 사모이다. 참여자 B 는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며 41 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10 년 전에 암을 앓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본 연구에 참여해 주었다. 참여자 C 는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34 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부부가 함께 은퇴하여 제 2 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 참여자 D 는 결혼 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한 때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으며 44 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다. 참여자 E 는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졸혼을 결심하여 남편과 6 개월째 별거 중에 있는 여성으로 결혼 기간은 38 년되었다. 참여자 F 는 유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며 40 년 동안 결혼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우울증 경험이 있다. 참여자 G 는 최근 암투병 이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으며 현재 94 세 시어머니 간병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또한, 유년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40 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 | 직분 | 나이 | 학력 | 거주지 | 생활수준 | 결혼 기간 | 신앙경력 |
|---|---|---|---|---|---|---|---|
| 참여자 A | 사모 | 67 세 | 대학원 | 서울-동대문 | 중하 | 37 년 | 모태신앙 |
| 참여자 B | 권사 | 65 세 | 대졸 | 서울-강남 | 중하 | 41 년 | 50 년 |
| 참여자 C | 집사 | 62 세 | 대학원 | 서울-동작 | 중 | 34 년 | 50 년 |
| 참여자 D | 권사 | 66 세 | 대졸 | 서울-서초 | 중 | 44 년 | 30 년 |
| 참여자 E | 권사 | 62 세 | 대학원 | 경기-용인 | 하 | 38 년 | 50 년 |
| 참여자 F | 권사 | 64 세 | 고졸 | 서울-서초 | 중 | 40 년 | 58 년 |
| 참여자 G | 권사 | 64 세 | 대졸 | 서울-서대문 | 중 | 40 년 | 54 년 |

B. 연구 방법

본 프로젝트는 60대 기독교 여성들이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담 방법을 선택하였다. 프로젝트 참여자인 60대 기독교 여성은 30년 이상 결혼 기간 동안 다양한 사건을 통해 크고 작은 부부 갈등들을 경험해 왔을 것이다. 이런 예상되는 가정아래 참여자의 부부 갈등 경험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듣기 위해 심층 면담은 가장 좋은 질적 연구 방법이 된다. 심층 면담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여러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심층 면담은 참여자와 만남을 지속하면서 그들의 말과 시선으로 살아온 경험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화하는 것이다.[44] 심층 면담의 목표는 참여자의 반응을 탐색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그들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구성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개개인의 경

[44]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323.

험과 인식, 느낌을 통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사건과 환경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필요한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본 프로젝트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방법론으로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에 의한 면담을 진행할 것이다.

반구조화된 면담이란 연구자가 만든 질문 목록에 의해 면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구조화된 질문을 한 다음에 개방된 질문을 하여 더 많은 정보와 피 면담자의 대답을 이끌어 내는 면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 반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는 이유는 구조화된 면담이 미리 만들어진 질문 목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되고 피 면담자의 입체적인 삶의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또한 비구조화된 면담은 개방된 질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면담의 내용을 정형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45] 따라서, 나는 일련의 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적절하게 개방형 질문을 함으로써 균형 잡힌 유연성을 유지하는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에 의한 면담을 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심층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졸혼이나 황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이혼이나 졸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3. 60대 기독교 여성으로 지금 어떤 갈등을 겪고 있으신지요?
4.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갈등을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5. 부부 갈등을 겪을 때 신앙생활이 부부 갈등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6. 당신은 가부장제가 부부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7. 부부 갈등 중에 남편에게 억압과 폭력을 경험한 적 있으시나요?
8. 여자와 남자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 김영천, 326-8.

9. 부부간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10. 부부가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때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11. 당신이 부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목회자와 나누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12. 당신은 부부 갈등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13. 당신이 남편과의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14. 당신은 부부 갈등 과정에서 공감과 존중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15. 당신은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하면 평등해질 것 같습니까?

C. 연구 절차

본 프로젝트는 60 대 기독교 여성들의 부부 갈등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 분석 절차를 따랐다. 현상학적 자료 분석 절차는 자료의 검토, 의미나 주제의 유출,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의 순서를 가진다. 첫째, 자료의 검토는 수집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의미나 주제의 추출은 의미나 주제를 추출하여 그것을 범주화하는 작업이다. 셋째,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하는 것은 범주화된 의미나 주제 단위의 진술들을 따로 묶어 여러 개의 의미 단위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넷째,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은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것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은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

의미나 주제에 대한 개념화를 하는 것이다.[46]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콜라이지(Paul F.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따랐다. 콜라이지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면담 시 녹음했던 것들을 옮겨 적고 반복적으로 읽는다.
2. 연구 참가자들의 면담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낸다.
3.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주제, 주제군, 범주로 조직한다.
4. 조사된 현상적 주제들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기술한다.
5. 분석 과정을 통해 나온 본질적인 구조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47]

나는 이러한 콜라이지 분석 방법을 따라 연구 대상자들의 면담을 분석하되 연구 대상자들을 차례대로 면담하면서 계속적으로 면담 질문과 내용을 분석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따랐다. 면담을 차례대로 분석 수정해 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첫 번째 면담자를 면담한다.
2. 면담 시 대화 내용을 기록한 기록지를 집중 분석한다. (콜라이지 분석 절차)
3. 면담 과정과 질문에 대해서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분석한다.
4. 두 번째 면담 질문과 과정을 첫 번째 면담 분석에 따라 수정한다.
5. 두 번째 면담을 하고 위의 과정을 따라 분석 수정한다.
6. 세 번째 면담을 하고 위의 과정을 따라 분석 수정한다.

---

[4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110.
[47] 김영천, 107.

7. 이후에 모든 면담도 이와 같은 분석 수정 과정을 따른다.

이러한 심층 면담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참여자의 삶의 경험을 듣고 그들의 갈등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나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내려 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참여자들을 그릇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고정 관념, 선입견 등을 내려 놓는 것을 현상학적 탐구에서 판단 중지라 한다. 이것을 에포케(epoché)라고 하며 사물과 사건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다. 이 단계가 현상학적 분석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된다.[48] 이와 같이 판단중지는 알고 있는 현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 놓고 새로운 현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49]

본 연구를 위해 나의 판단 중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는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도 이혼만은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2. 참여자는 부부 갈등 시 부부와 가정을 위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3. 참여자는 부부 갈등 시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것이다.

4. 참여자는 교회에서 부부 갈등의 어려움을 감추려 할 것이다.

5. 참여자는 신앙생활을 통해 부부 갈등을 잘 극복할 것이다.

6. 참여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D. 연구 결과 및 해석

나는 프로젝트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얻어진 일련의 자료들을 콜라이지

---

[48] 김영천, 95.

[49] Nigel King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 김미영 et al. (서울: 현문사, 2013), 253-4.

(Colaizzi)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60대 기독교 여성으로서 새로운 화두로 황혼 이혼과 졸혼이 대두되는 한국 사회 안에서의 경험과 의식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선별하여 24개의 주제와 9개의 주제군,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첫번째 범주(A)는 “가부장제적인 억압”으로 3개의 주제군(가부장적 사고, 성차별, 잘못된 성경관)과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범주(B)는 “왜곡된 신앙”으로써 2개의 주제군(신앙으로의 회피, 무조건 참음)과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셋째 범주(C)는 “목회 돌봄의 한계”로 2개의 주제군(비전문성과 비밀 유지)과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넷째 범주(D)는 “의사소통의 단절”으로 2개의 주제군(무시, 대화 부재)과 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 자료 분석을 아래의 표에서 요약하였다.

〈표 2〉 자료 분석 결과: 범주, 주제군 및 주제

| 범주 | 주제군 | 주제 |
|---|---|---|
| A.<br>가부장제적인<br>억압 | 1. 가부장적<br>사고 | 1) 남편 말에는 다 yes라고 해야 돼.<br>2) 여자는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br>3) 아내와 자녀는 내 소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안 좋은 기분을 집에 와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죠.<br>4)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쥐락펴락 하면서 조종하려고 해요. |

| | | |
|---|---|---|
| | 2. 성차별 | 1) 같이 일을 하고도 너는 여자니까 여자일을 하라고 하면, 그거는 비합리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자를 노예로 생각하는 거죠.<br>2) 남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수입을 해와야 하는 거고, 그런데 여자는 가정에서 잔잔하게 도와야하는 거에요.<br>3) 아내가 남편을 대접해 주길 바라고, 뭐든 다 해주기를 바라고, 당연한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br>4) 딸을 많이 낳았으니까 우리 시댁에서 아들을 낳기를 원하잖아요. |
| | 3. 잘못된 성경관 | 1) 제가 많이 참았죠. 사랑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복종하라고 나오잖아요. 돌았네. 복종을 왜 하나 그러면서도 계속 그게 가슴을 치는거에요.<br>2) 이혼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요. 네. 하나님이 맺어주었기 때문에... 또 내 친정이 안 믿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
| B.<br>왜곡된 신앙 | 1. 신앙으로의 회피 | 1) 저는 주로 신앙으로 회피했어요. 오직 교회. 새벽기도. 남편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난 어디 가서 풀어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사람에게는 그 때 말을 못했어요.<br>2) 새벽 기도 혼자 다니는 시간이 좋았어요. 다 떼고 나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구요. |
| | 2. 무조건 참음 | 1)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극복이냐면 그 과정을 잘 넘길 수 있었다는 거는 그냥 인내 밖에 없었던 거예요. |

| | | |
|---|---|---|
| | | 2) 병원에서 간병하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도 짜증을 부리고 그럴 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참다 참다가 안 돼서 하는 말은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
| C.<br>목회 돌봄의 한계 | 1. 비전문성 | 1) 지금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것을 다 공개하면 이것을 성숙하게 처리해줄 교회에 그런 시스템도 없을뿐더러 또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훈련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br>2) 지금 한국 교회 다 그래요. 무조건 부부 싸움하면 기도로 끝내는거에요. |
| | 2. 비밀 유지 | 1)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알면 다른 사람한테 소문을 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남편을 아니면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일까봐 말 안했어요.<br>2) 기도는 일대일로 부탁한 기도인데, 그 비밀이 딴 사람한테 연결되면 배신감 같은게 느껴지죠. 교회에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안해요. |
| D.<br>의사소통의 단절 | 1. 무시 | 1) 드라마 본다면 공부나 하지 저런 신파극을 본다고. 한 두 번 그 말 들으니까 말을 하기 싫더라구요.<br>2) 여자가 뭘 그렇게 아느냐 너가 뭘 그렇게 안다고, 나만 따라와.<br>3)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너랑 결혼해서 못 산다고. 이런 걸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해요. |
| | 2. 대화 부재 | 1)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뭘 원하는가 그걸 구분을 |

| | | |
|---|---|---|
| | | 못해. 자기 기준으로 전부 다 하니깐 엄청 힘들어요.<br>2) 제가 평소에도 이걸 항상 무마하고 회피하고 나는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돼.<br>3) 평소에 직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말하면 뭐하냐. |

나는 이렇게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4가지 범주들을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 신학은 가부장적인 요소인 모든 억압과 차별을 없애고 수평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50] 따라서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60대 기독교 여성들의 경험 속에 어떠한 억압과 차별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페미니스트 신학은 무엇인가? "페미니스트 신학은 여성을 어떤 부차적 존재로 몰아가는 구조들, 상징들, 가치 체계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철저한 비판을 하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대안 제시를 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51] 강남순은 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페미니스트 신학은 이제까지의 전통 신학이 인간 전체의 경험이나 관점이 아닌, '남성'의 경험과 관점에서만 형성되어왔음을 비판한다. '인간'이라는 보편적 범주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배제된 남성만의 관점에서 신학이 구성되어왔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신학은 이러한 전통 신학의 한계를 넘어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형성하는 신학이다.[52]

이렇게 표출된 연구 결과를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50]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31.

[51] 강남순, 32.

[52] 강남순, *젠더와 종교* (서울: 동녘, 2018), 115.

1. 가부장제적인 억압

본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첫 번째 범주(표2: A)는 '가부장제적인 억압'이다. 60대 기독교 여성들은 가정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부장제적 사고에 기반한 성차별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서 살아왔다고 증언한다. 첫 번째 주제군은 '가부장적 사고'였다. 참여자 E와 F는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참여자 F〉

*자기 말에는 다 yes라고 해야 돼. 자기는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맞아요. 이 사람이 틀리거나 그런 말은 아닌데. (그거는 정서이고 다름이지) 그렇지 다름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단어에요. 다름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다름을 인정을 안 해주더라구요.*

〈참여자 E〉

*우리 남편이 성격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자를 무시하는. 여자는 그냥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오직 남편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자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신혼 초부터 저에게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폭력이라고 할까요? 음.. 그래서 내 마음에 한을 심어주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내가 이 남편하고 살면 계속 행복할까? 계속 의문이 드는거죠. …… 근데 그 때도 아내를 요구하고 아내가 자기를 대접해주길 바라고, 뭐든 다 해주기를 바라고, 당연한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갈등이 그런 모든 소소한 것이 안 맞죠. 내가 어디 외출을 하면은 어디 가냐고 알고 싶어하고, 자꾸 자신이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하니까 아내를 의심하고. 간섭하고. 내 행동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내 하는 일에 간섭하려고 하고, 노파심을 가지고. (소유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소유로 생각하니까 항상. 그런거죠..*

이처럼 60대 기독교 여성들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깊숙이 스며든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타자화 시키는 억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성도 그것을 내면화 시키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동옥은 종교가 착한

여자가 되기를 권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여성 신자들은 착한 여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감정 상태인지 알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신앙이 깊은 여성 신자들은 착한 여자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생각하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한다. 이러한 환상은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성역할 규범과 질서를 강화한다.[53]

여성들이 가부장제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따르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차별과 억압이 잘 못된 것인 줄 모르고 남성들이 만들어낸 신념, 가치 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조하여 이러한 억압이 정당한 것으로 내면화 되어 있다.[54]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강남순은 유교의 삼종지도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지금까지의 여성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또는 누구의 엄마로 존재해왔다. 사람들이 결혼한 여성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부르는 것은 바로 '타자'로서의 여성의 삶을 드러낸다. 이러한 여성의 타자로서의 삶의 정황은 여성에 대한 유교의 가르침인 '삼종지도'와 어긋나지 않는다. 유교의 삼종지도에 따르면 여성은 언제나 아버지, 남편, 아들 등 남성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고, 가족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가 인식된다.[55]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여성은 남편의 언어적, 경제적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E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 *아내와 자녀는 내 소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안 좋은 기분을 거기와서 공포를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 건들지 마라는 식으로 화를 내고. 누군가와 싸움을 하면서 화를 내고 그런 분위기죠. …… 반찬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져요.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의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거기다가 투사하는거죠. 그러면서 냉장고를 열면서 뭐가 많은데 반찬이 이게 뭐냐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러면서 뭐든지 공손*

[53] 이동옥, *묵주반지를 낀 페미니스트* (서울: 현암사, 2018), 44-5.
[54]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294-7.
[55] 강남순, *젠더와 종교*, 285-6.

> *히 대해주고 자기를 말하자면 집에 있는 서비스를 받는 여자로 생각해요. …… 자기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쥐락펴락 하면서 (경제적인 걸로 조종하는 거) 그렇죠. 조종하려 그러고. 모든 걸 경제적인 걸로 조종하려고 그러죠. 저도 조금 더 빨리 내가 더 분리될 수 있었을텐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처럼 가정 폭력은 참여자 E의 고백처럼 가정이 환대의 장소가 아니라 공포와 위협의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다. 돈을 벌어준다는 이유로 경제적 폭력을 일삼아도 경제력이 없는 참여자 E는 졸혼을 결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였다.

이현심은 사례 연구에서도 황혼 이혼 여성의 경험이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반란이며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황혼 이혼 결정 요인도 같은 결론을 뒷 받침해 주고 있다.[56] 이와 같이 60대 부부 갈등과 이혼의 원인이 가부장제에 의한 남편의 강압, 폭력, 외도, 실업 등이 많고 시대 흐름에 따라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변화하여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가부장제의 전통적 가치관이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에 대한 해체를 요구하는 노년기 여성들의 용기있는 결단이며 부르짖음인 것이다.[57] 김세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 가정 내에서 가부장적 권위를 행사하며 자기 명령 아래 일사 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정을 화평한 가정이라고 여기고, 순종 잘하는 아내로부터 대접받고 사는 남편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 남편은 자기 아내와 그런 관계를 이룸으로써 사실상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더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공히 자신의 형상, 곧 대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어긋나고, 또 남자와 함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어긋난 것이다.[58]

---

[56] 이현심, "황혼이혼 여성노인에 대한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vol. 68 (June 2015): 89-101.
[57] 유순희, "황혼이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2.
[58]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128.

이와 같이 가부장제는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고 아내를 착취하는 죄를 짓는다고 한다. 가부장제적인 억압에서의 두 번째 주제군는 '성차별'이었다. 참여자 D와 E 그리고 F는 아래와 같이 고백하였다:

〈참여자 E〉

*여자와 남자의 역할.. 아 물론 예를 들어서 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기운이 없는데 아픈데 여자 역할이라고 밥을 해야되는 거 아니고. 그럴 때는 힘이 있는 남자가 하면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해요. 같이 일을 할 때는 아무나 같이 가사 노동을 해야 하죠.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도 너는 여자니까 여자일을 해라고 하면, 그거는 비합리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자를 노예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은, 그것은 성차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등한 서로 존중해주는 생각은 아니고, 그거는 성차별적인 생각, 여성 비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역할을 강요하는 거에요.*

〈참여자 F〉

*그렇죠. 그냥 남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수입을 해와야 하는거고, 그런데 여자는 가정에서 잔잔하게 도와야 하는거. 아직까지 저는 거기에 있어요. 그랬는데..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남자는 그냥.. 여자 말에 좀 동조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하고. 저는 이제 와서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간섭했나? 그런 게 와요.*

〈참여자 D〉

*딸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게 부부 관계가 되지는 않는데, 딸 많이 낳았으니까 우리 시댁에서 아들을 낳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갈등이죠. 또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넷은 많지 않나. 딸 셋 낳았을 경우에. 근데 우리 남편은 "나는 안 낳고 싶다" 뭐 그러고 그러다 또 하나 더 낳아볼까 막 그러고. 이래저래 해서 가졌는데 이 조무래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그 때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도, 그런 거 가지는 거는 한 번은 더 저기하는데 하나님 주시는대로 낳기. 딸이라고 지우고 이거 하지 말기로 약속하고 하라고.. 그래서 낳을 때까지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컸던 거 같아요.*

이와 같이 60대 여성들은 사회의 공적인 차원의 관심과 도움은 받지 못하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으로 남아 선호와 남존 여비의 사상을 홀로 감내하거나 반항하며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야 했다. 이러한 유교사상은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 개인이 희생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 이기 주의를 탄생시켰다.[59] 이러한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체면 문화가 발달되고 부부나 자녀 문제를 숨기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가짜 친밀성(pseudomutuality)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였다.[60]

이러한 숨겨진 감정은 자녀 문제, 부부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가족들은 문제 해결이나 대처 방법의 미숙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가부장제인 억압에서 세 번째 주제군은 잘못된 성경관이었다. 참여자 D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 *그래서 제가 많이 참았죠. 사랑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복종하라고 나오잖아요. 돌았네. 복종을 왜 하냐. 그러면서도 계속 그게 가슴을 치는거에요. 그래서 돌아봤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복종 근처에도 안 가죠. 내가 왜 복종을 해? 그러면서도 미안하네 조금 미안하네. 예수님 말씀인데. 그럼 나 그렇게 해야 하나? 이러면서.*

강남순은 기독교 덕목으로서의 '순종'과 가부장제에서 강요하는 '순종'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 가부장제적으로 구성된 윤리는 온유와 겸손, 순종과 자기 희생, 또는 자기 부정의 사랑 등의 기독교적 덕목을 내세워 여성의 자기 주장과 자율성의 개발을 가로막으며 소위 '여성다운' 순종적이며 수동적인 태도의 내면화를 강화하여 왔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됨'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인 '순종'의 덕목은 아버지-남편-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제적 권위에의 복종을 여성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한국의 유교 문화와 결합되어 한국 교회에서 여성에게 자신들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강력한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로 왜곡되어 강조되어 왔다.[61]

강남순은 위와 같이 순종이 왜곡되어 왔고 여성들 조차도 이러한 순종에 대한 비판없이 신앙이

---

[59] 김규수 and 오현숙, *가족치료* (서울: 양서원, 2008), 57-75.

[60]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가족치료총론* (서울: 동인, 2000), 24. quoted in 이향숙, "가정 예배가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심리상담* vol. 1 (January 2009): 155.

[61]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298.

좋은 여성으로 포장되어 살아왔다. 이를 강남순은 여성 스스로 허위 의식에 사로 잡히게 되었다고 말했다.[62] 기독교적이고 올바른 순종은 순종이란 하나님 뜻에 의한 순종이며 순종의 대상이 어떤 권위나 권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63]

이와 같이 성경 해석은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자가 누구인가 해석자의 위치가 어떤 권력 구조 안에 있는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립적 해석이란 불가능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64] 따라서 교회사는 올바른 복음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잘못하면 복음이 오히려 압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65] 이는 남성들로 이루어진 교회 지도부가 가부장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한다면 순종이 오히려 억압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66] 이러한 억압의 예로 가부장제를 옹호하기 위한 그릇된 성경의 해석으로 이혼에 대한 것이 있다. 이혼에 대해서 참여자 F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 *당신 마음에 꼭 맞는 여자 한 번 데리고 살아봐라. 그러면 화내고 문 쾅 닫고 나가버리죠. 그러고 이제 나가면 나는 나대로 또 한참 울다보면 괜찮아져요. 네. 신앙 아니면 내가 견딜 수 없었겠죠? 어..근데도, 이혼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요. 네. 하나님이 맺어줬기 때문에.. 또 내 친정이 안 믿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 가서 전도하려고. 남편이 그리 아프고 힘들어도 절대 친정에 가서 힘들다 소리 안 했어요. 나중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알게됐죠.*

성경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워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6, 개역개정)"라고 이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세윤은 사람이 악하여 더한 죄를 막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악이 있다고 한다. 예를

---

[62] 강남순, 299.
[63] 강남순, 298.
[64]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308
[65]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95-6.
[66] 김세윤, 95-6.

들면, 가정 폭력과 같은 상황에서 생사를 위협하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 보다 오히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된다.[67] 올바른 부부 관계에 대한 성경적 규범이 되는 에베소서의 말씀(에베소서 5:21-33)에서 말하는 복종을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구조의 근거로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여성은 이 말씀을 갈등 상황에 적극적 해결이 아닌 회피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60대 기독교 여성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반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올바른 성경관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가부장적 억압에서 가부장적 사고, 성차별, 잘못된 성경관으로 인해 여성의 삶은 타자화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2. 왜곡된 신앙

본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두 번째 범주(표 2: B)는 '왜곡된 신앙'이다. 부부 관계에서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그 갈등을 대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예: 새벽 기도, 기도원)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왜곡된 신앙의 첫번째 주제군은 '신앙으로의 회피'였다. 이것은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참음으로써 더 많은 한이 쌓일 가능성이 높다. 참여자 D 와 E 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참여자 D〉

*새벽 기도 혼자 다니는 시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고 누가 한 번 물었는데, 나 혼자 있는 시간이라 좋았어요. 다 떼고 나 혼자 있는 시간. 4 시부터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구요. 그니까..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밖에 없었어요. 가도 갈 데가 없는데. 친구들도 다 잘 사는 거 같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다 나은 것 같고. 나만 이러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할 데 없죠. 새벽 기도 와서 방언 터졌어요.*

[67] 김세윤, 72-3.

〈참여자 E〉

*저는 주로 신앙으로 회피했어요. 오직 교회. 새벽 기도. 남편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난 어디 가서 풀어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사람에게는 그 때 말을 못했어요.*

이런 회피에 대해 체리 힐(Cherie hill)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기보다 신앙으로 덮어서 가리려는 현상에 대해 "예수님은 결코 고통을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덮어서 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지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갈등 시 일어나는 고통과 힘든 상황을 대면하기 보다는 회피하면서 타인들에게 숨기고 살아간다. 이러한 회피는 더 큰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68] 이처럼 현실을 회피하도록 하는 신앙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으로 회피할 때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왜곡된 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회피는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신앙으로의 회피가 왜곡된 신앙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참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운즈(E.M bounds)는 기도를 하고 기도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기도라고 하면서 "응답 받을 것을 믿으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응답이 보이거나 우리 마음 속에서 응답의 확신이 느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도 중에 계속 살핀다고 말했다."[69] 즉, 기도한 뒤에도 문제와 갈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갈등 상황을 자주 유발하는 구체적 요소들을 되짚어보는 일이

[68] Cherie Hill, *Empty 공허함,* trans. 배응준 (서울: 규장, 2016), 36.

[69] E. M Bounds, *Prayer and Revival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trans. 이용복 (서울: 규장, 2009), 16.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에게서 적절한 갈등 대처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오히려 어린 시절 부모의 갈등 상황에서 학습된 감정인 두려움으로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회피하고 있었다. 이러한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는 감정은 아니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려움을 대면하여 갈등 해결을 경험하면 우리의 내면은 더욱 건강해지고 부부 관계도 더 연합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사도행전 17 장 28 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행전 17:28, 개역개정)"라고 말하고 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움심으로 두려움을 대면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품어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70] 이와 같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부 갈등시 당사자들끼리 갈등에 대처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이다. 아네트 마호니(Annette Mahoney)는 "기도란 믿음과 함께, 그 믿음대로 움직이는 실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며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갈등 회피의 수단으로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때 갈등을 해결하면서 부부간의 서로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갈등은 서로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70] Anne Kristin Carroll, *Together Forever 부부 갈등과 치유,* trans. 박진우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311.

때 일어나므로 부정적이 되면 상대에 대해 더 강압적이 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은 건강하게 해결하여야 한다.[71]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바이텐(Wayne Weiten)은 사람들의 갈등 대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회피형은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피하는 형으로 상대방은 무시당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하여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관계의 단절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유형은 건강하게 갈등을 대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불쾌하고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순응형은 갈등 상황시 상대방 입장에 따르는 형으로 자존감이 약하고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이런 유형은 계속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지배형은 가부장제 하에서 남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형으로 아내를 지배 억압의 대상으로 보고 공격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 상대방은 분노와 적대의 감정이 생겨 더 이상 관계를 지속시키기 힘들어 진다. 넷째, 타협형은 부부 갈등 시 서로 타협하며 협상하는 형이다. 이 방법은 우선은 타협이 되어 갈등이 해결된 것 같지만 같은 갈등 상황이 반복되면 근복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게 된다. 통합형은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문제의 초점을 두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최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따라서 갈등 시 일방적으로 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이기는 관계가 되어 갈등 해결 후 서로 만족감과 신뢰감을 얻게 되고 앞으로의 부부 관계에서 갈등을 줄여

[71] 박욱주, "신앙으로 인한 가정불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크리스천투데이*, July 23, 2017,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2579.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72] 이와 같이 5 가지 갈등 대처 유형 중에 통합형은 가부장적인 지배나 갈등 회피, 순응 혹은 일시적인 해결이 아닌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 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 좋아지고 결속력이 생겨 부부 연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바람직한 대처 방식이 된다.[73]

이와 같이 질적 연구 결과 첫째, 질적 연구 참여자들은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 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신앙으로 회피한 이유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60 대 부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부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대면하여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둘째, 참여자들은 부부 갈등을 개인적 차원 혹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만 이해하고 있어 이러한 부부 갈등을 사회적, 문화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인식해야 하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함을 나는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 관찰하게 되었다.

왜곡된 신앙의 두번째 주제군은 '무조건 참음'이다. 참여자 B, F 는 신앙에 의지해 무조건 참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 〈참여자 B〉
>
> *극복했다는 거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극복이냐면은 그 과정을 잘 넘길 수 있었다는 거는 그냥 인내 밖에 없었던거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없죠. 왜냐면 그게 일방적이면 안되고 양방이 같이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신앙적인 문제도 그 사람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아직까지 따라오지는 못하잖아.*

[72] 변화순, *가족정책으로 바라본 여자 남자 이야기*, 218-21.

[73] 변화순, 221.

〈참여자 F〉

*고비가.. 그런 고비들이 잔잔한 고비들이 많았어요. 남편 건강이 안 좋아서. 한 12 년 됐나요? 암 앓았을 때. 그 때는 남편이 항암맞고 하니까 자기 밖에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수발 하는 나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병원에서 간병하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도 짜증을 부리고 그럴 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참다 참다가 안 돼서 하는 말은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와 같이 무조건 참음에 대해 이덕화는 여성들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바로 투쟁적이다. 이 투쟁적인 삶을 있는 그대로만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자기 극복의 원천이 된다. 그러기에 여성들의 삶은 삶 자체가 바로 텍스트가 된다. 당연시되어 온 여성들의 가부장적 의식에 따른 수동적 삶은 여성들 자신에게는 고통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인내와 희생이 여성들의 삶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해도, 또 그것에 순응하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어느 순간, 그 인내와 희생은 무의미함을 인식하고 허망함을 깨닫게 된다. 그 속에 자신의 목소리가 사장되는 인내와 희생은 자신의 죽음이기 때문이다.[74]

60 대 기독교 여성은 참는 것이 미덕인 것으로 알고 갈등을 회피하거나 무조건 참음으로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이어졌다. 종교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교회는 타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는 보수적인 공간이기에 오히려 신앙이라는 명제 아래 여성들에게 가정 내 불의와 갈등에 직면하고 싸우기 보다는 침묵하고 희생하기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왜곡된 신앙이 결국 여성의 현재의 삶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잃게 하고 자신을 억압하고 있음을 나는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한 관찰하게 되었다.

---

[74] 이덕화, *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서울: 예림기획, 2005), 183-6, quoted in 김순례, "근대사회 형성기 여성적 세계관의 변화양상 연구" (PhD diss.,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4), 46.

3. 목회 돌봄의 한계

본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세 번째 범주(표 2: C)는 '목회 돌봄의 한계'이다. 목회 돌봄의 한계의 주제군은 '비전문성'과 '비밀 유지'였다. 교회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으며, 교제의 장을 제공한다. 교인들은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 받기 원한다. 이러한 교회에서 목회자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자질과 전문성, 올바른 신앙관으로 교인들을 돌봐야 한다.[75]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매해 목회자 윤리 강령 제정이 부결되어 사실상 유명 무실하지만 여기에 목회의 전문성과 비밀 유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76] 예장 합동 목회자 윤리 강령 헌의안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비밀 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제 6 조 (전문성) 목회자는 목회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곧 성경과 신학과 인간 역사와 사회 전반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과 교회 섬김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등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
> 제 9 조 (비밀 유지의 의무) 목회자는 목회 상담 등과 같은 목회적 돌봄의 과정에서 알게 된 성도들의 개인적인 정보, 특히 내밀한 정보를 설교와 여타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예상되거나 피상담자 자신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77]

---

[75] 이은규, "[특별기고] 목회자에게 쏟아지는 비난들," *기독일보*, March 24, 2016,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7444/20160324/%ED%8A%B9%EB%B3%84%EA%B8%B0%EA%B3%A0-%EB%AA%A9%ED%9A%8C%EC%9E%90%EC%97%90%EA%B2%8C-%EC%8F%9F%EC%95%84%EC%A7%80%EB%8A%94-%EB%B9%84%EB%82%9C%EB%93%A4.htm.

[76] 이승규, "목회자 윤리 강령 사실상 유명무실," *노컷뉴스*, June 17, 2016, http://www.nocutnews.co.kr/news/4609591.

[77] 편집부, "예장합동 목회자 윤리 강령 헌의안," *국민일보*, August 21, 20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365557&code=23111212&sid1=kmi.

이와 같이 정식으로 표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목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비밀 유지의 윤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60 대 여성들은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불신과 아쉬움을 보였는데 참여자 B 와 E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여자 B〉

*지금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것을 다 까발려서 놓고 보면 이것을 성숙하게 처리해줄 교회에 그런 시스템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훈련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부부 상담가라던가 그런) 뭐 목회자라고 옛날에는 여전도사님 뭐 이렇게 있는데가 있었잖아요. 그런거를 느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거기에다가 왜 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신뢰가 없어요.*

〈참여자 E〉

*지금 한국 교회 다 그래요. 무조건 부부 싸움하면 기도로 끝내는거에요. 그게 아니라 법으로 가야해. 경찰에 신고해서 이거는 당신은 상담을 받아야 해. 가정 폭력 법이 더 강해져야 해요. 그래서 외국처럼 형법으로도 하게 해야죠. 외국에서는 지나가는 여자 때리면 형사법으로 처벌되잖아요. 집에서 아내를 때려도 형법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내를 때리면 내 가족이라고 안돼. 말이 안되는 거죠. 부부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닥이고, 교회 안에서는 더 바닥이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일단은 여성들은 마음 속에 한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 E와 같이 여성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교회는 가부장적인 요소와 유교사상으로 여성이 참고 기도하면 남편이 변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성경관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돌봄은 오히려 여성들의 고통만 더해지고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회의 할 일은 이러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여성들이 힘을 얻어 이러한 폭력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78] 성도들은 교회가 성도 개인의

[78] 이동옥, *묵주반지를 낀 페미니스트*, 21-2.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드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79]

양종래는 이러한 성도들의 불만을 이해하고 상담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고충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목회자들의 행정 업무량과 설교 준비 등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일일이 심방하거나 상담하는 것은 힘들다. 둘째,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생각하고 상담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실상은 목회자들이 상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실망하기 쉽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도울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셋째, 성도들이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비용 문제 때문에 상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유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자신의 문제를 감추거나 미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타인에게 쉽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다.[80] 이어서 양종래는 다음과 같이 목회자와의 상담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 성경에서도 보면 아담이나 가인이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또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기보다 오히려 회피한다(창세기 3:8, 4:9).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 지는 이런 문제들은 '기다리는 상담'을 어렵게 한다. 또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목회장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문제가 해결된 후 평정을 되찾으면 자신의 문제를 목회자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 목회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심할 경우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81]

이상과 같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상담을 할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목회자를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비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

[79] 신수일, "[책읽기 (2)] '가나안 성도'를 통해 본 한국 교회의 민낯: 정재영의 『교회 안나가는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독교사상* vol. 684 (December 2015): 224-32.

[80] 양종래, "상담 기능 설교와 그 방법," *신학과 복음* vol. 1 (October 2016): 41-2.

[81] 양종래, 41-2.

실망하게 되고 신뢰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82] 그러므로 목회자가 소통할 때 신뢰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성도가 말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해 줌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83]

그러나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속에 나타나는 현실은 이런 목회자의 윤리와 거리가 멀었다. 참여자 E, F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여자 E〉

*목사님하고는 내가 신혼 때만 나눴어요. 최근에는 전혀 말 안 했어요. 목사님하고는 아주 조금 신혼 때만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알면 다른 사람한테 소문을 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남편을 아니면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볼까봐 말 안했어요.*

〈참여자 F〉

*기도는 1 대 1 로 부탁한 기돈데, 그거를 딴 사람한테 기도해줘 하면 연결되면...이게 딱 되가지고 깊이는 안들어가요. 어느 선이 딱 있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 딱 정해져 있고, 교회에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안해요. 배신감 같은게 느껴지죠. 절대 기도제목 안내놔. 그 사람에 대한 불신도 되고, 교회 시스템?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교회에서는 정말 입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건데, 거기에 대한 불신인거에요.*

이와 같이 목회 돌봄의 한계인 비밀 유지와 비전문성으로 인해 참여자들을 부부 갈등 시 교회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 목회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사역 기관과의 연계와 전문성을 지닌 평신도를 목회 돌봄에 활용하는 포괄적 목회 돌봄이 필요하다. 교인들 역시 목회자에 대한 의존과 순응이 아닌 자신의 위치와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교회 공동체원들과의 감정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상호간의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

---

[82] 고형일, 장길상 and 송정수, "셀프리더십이 리더신뢰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적지원관리연구* vol. 18, no. 1 (March 2011): 50.

[83] 유영권, "한국 교회의 소통과 공감 능력에 대한 분석과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vol. 42 (June 2015): 50.

4. 의사소통의 단절

본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네 번째 범주(표2: D)는 '의사소통의 단절'이다. 질적 연구를 통해 만난 60대 기독교 여성은 의사소통의 단절로 공감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시였다. 참여자 D와 E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참여자 D〉

*자존심 상하는 거에요. 나를 무시하잖아요. 드라마 본다면 뉴스씩이나 본다고 공부나 하지 저런 신파극을 본다고. 한 두어번 그 말 들으니까 말이 하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무시하네 이러고 그대나 좋은 거 많이 보시오. 안 봐요. 안 보고 탁 들어가면. 나도 속상하고 저 사람도 마누라가 기분 나쁘구나를 알잖아요. 서로 기분 나쁘고 말 안 해.*

〈참여자 E〉

*여자가 뭘 그렇게 아느냐. 너가 뭘 그렇게 안다고, 나만 따라와.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무시네요?) 네, 무시죠. 일단 대화가 안 되니까 갈등을 못 푼거죠. (내가 참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피죠. 네. 그냥 대화를 해서 갈등을 풀려고 하면 더 커지니까 아예 나는 축소시키는거죠. 내 안에 쌓여 있는거죠. 갈등을 회피하면서 내 안에는 한으로 그게 쌓여가는거죠. 속 시원하게 대화가 안 되니까.. 너가 잘못된거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생각만 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는 회피만 하는거죠. 그러면서 쌓아 놓는거죠. …… 아내 역할 못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빵점짜리 아내라고, 너랑 결혼해서 못 산다고. 이런 걸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뭔가 화가 나가지고 욕하는 거 그리고 폭력으로 하는 거 그런 거는 없어야죠. 그렇죠. 억압하고 폭력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회피하려고 조용히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 마음에는 한이 쌓인다.*

참여자 D 와 E 의 고백과 같이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여 공감과 존중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의 한(恨)으로 쌓이게 된다. 부부 갈등시 불만이 생기지만 이를 비난으로 표현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된다. 왜냐하면 불만은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비난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동에 대한 불만이 비난이나 무시로 가지

않도록 한다.[84] 이러한 비난이나 무시를 당하면 상대방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기 비하의 감정이 올라온다.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면 소통이 힘들어 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 다시 자존감이 상하고 관계는 더욱 악화된다.[85]

두 번째 주제는 대화의 부재였다. 부부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사랑과 행복이 솟아나고 외로움과 불안이 사라지며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된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쁨이 된다.[86] 하지만 남편이 은퇴한 경우에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새로운 문제와 갈등이 발생되고 있었다. 부부간에 대화와 소통의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부부에게 남아도는 시간은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참여자 B와 E 그리고 D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한다:

〈참여자 B〉

*내가 뭐 싫어하고 뭘 원하는거 그걸 구분을 못해. 자기 기준으로 전부다 하니깐 엄청 힘들고 바빠요. 신경쓰고. 잘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들게 하지 가만 있었음 좋겠어. 시키는 것만 했음 좋겠어. 해달라는 것만 하지 알아서 뭐 자꾸 나서서 하지 않았음 좋겠어.*

〈참여자 E〉

*제가 평소에도 이걸 항상 무마하고 회피하고 나는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음.. 이 남편으로 이 남편과 뭔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랑은 물론 마음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외롭고, 싫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는거죠.*

---

[84] John M. Gottman,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trans. 임주현 (서울: 문학사상사, 2002), 51.

[85] 최광현, *가족의 두얼굴* (서울: 부키, 2012), 208.

[86] 최광현, 30.

〈참여자 D〉

*서운한 게 있어. 혼자 결정했을 때. 그런 것도 혼자 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상의 절대 안 해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무시.. 보다는 평소에 직장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말하면 뭐하냐.*

부부가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없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을 때 더 상처를 받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결혼해서 함께 살지만 혼자라는 느낌을 받고 산다.[87] 참여자 E 의 고백처럼, 육체적인 사랑은 물론 마음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 가족은 따뜻함과 편안함 보다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단점보다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88] 의사소통의 단절은 대화의 부재이며 친밀감이 사라질 때 생긴다.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친밀감인데 친밀감이 사라지면 의사소통이 힘들어 지고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다. 60 대 부부는 그 동안 친밀감이 사라져 의사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었다. 오히려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친밀감이 사라지면 사소한 문제에도 다투게 된다. 친밀감이 있으면 의사소통은 저절로 이루어 진다.[89] 원할한 의사소통은 부부를 행복하게 하며 부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부부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의사소통이 육체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여 부부 관계의 활력소가 된다. 특히 여성은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통하여 남편의 공감과 격려를 받으면 친밀감과 신뢰감을 회복하여

---

[87] 최광현, 23-4.

[88] 최광현, 5.

[89] 박성덕,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서울: 지식채널, 2011), 176.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90] 이렇게 소통을 나눌 때 인간의 뇌는 기쁨을 나누게 된다. 특히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방과 소통하지 못하고 무시와 대화 단절이 되면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인 한(恨)이 생기게 된다.[91]

부부의 친밀감을 회복시키고 연합을 돕는 가족 치료 이론 중 수잔 존슨(Susan M. Johnson)의 정서 중심적 부부 치료가 있다. 정서 중심적 부부 치료는 개인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다루어 줌으로써 관계를 회복시킨다. 개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치유하여 관계 개선을 이루고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치료법이다.[92] 정서 중심적 부부 치료는 부부 관계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고리가 문제이다. 부부간의 친밀성을 회복하면 모든 부부 문제가 풀리게 된다. 수잔 존슨(Susan M. Johnson)이 개발한 정서 중심적 부부 치료는 7 가지 대화법을 제시하였다.[93] 첫째, '파악하기'로 자신들이 갇혀 있는 부정적 대화를 찾아낸다. 둘째, '뿌리찾기'로 상처의 뿌리를 찾는 과정이다. 셋째, '돌아가기'로 자신이 관계를 맺는 부정적 방식을 재현한다. 넷째, '요청하기'로 부부가 서로 다가가서 정서적으로 반응한다. 다섯째, '용서하기'로 과거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고 용서받는다. 여섯째, '접촉하기'로 신체적 정서적 유대감을 키운다. 일곱번째, '유지하기'로 회복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상의 대화법을 통해 부부가 강하게 결합하여 부부 관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94]

---

[90] 이근호, *성서로 본 부부 갈등과 가족문제 해결*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9), 92.
[91] 최광현, *가족의 두얼굴*, 224.
[92] 박성덕,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177.
[93] 박성덕, 179.
[94] 박성덕, 182-3.

박세경은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이 잘되어 대화가 잘 이루어지며 서로 친밀성과 유대감이 생겨 서로 돕고 격려하며 서로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부부가 평등하고 서로의 책임을 다할 때 부부는 건강하고 부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무시나 대화 부재가 되면 부부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잃게 되어 부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95] 질적 연구 결과 무시와 대화 부재로 60 대 부부들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고 있었다. 그 결과, 부부 각자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참여자 E 처럼 함께 있기 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여 졸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층 면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60 대 기독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가부장적 사고와 왜곡된 신앙, 목회 돌봄의 비전문성과 비밀 유지가 되지 않음에 대한 불신으로 가정에서나 공동체에 깊이 소속하지 못하고 점차 자신들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60 대 기독교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억압에서의 인식의 전환으로서의 알아차림과 해방을 맛보고 왜곡된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켜 복음의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 또한, 목회 돌봄에 대한 한계에 절망하기 보다는 포괄적 돌봄으로 나아가고 부부 관계 안에서의 무시와 대화 부재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60 대 기독교 여성들이 남은 생을 전인적으로 건강한 부부 관계로 향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95] 박세경.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vol. 91 (May 2004): 69-84.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4 가지 갈등이 환대 신학으로 어떻게 치유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Chapter III
환대 신학

A. 환대의 정의

환대(hospitality)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나누는 대화와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과 부담을 주지 않는 친절로 상대를 최대한 존중해 줌으로써 친구가 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96] 이러한 환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의 공간을 개방하고 처음 만난 사람을 나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따뜻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대는 낯선 사람을 나와 같은 공간에 있게 하고 함께 대화하며 그가 가까이하는 것을 승락하는 것이다.[97] "환대는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 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98] 김현경은 인간으로의 존엄성과 환대의 당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태어난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한다는 것은 그 생명이 살 가치가 있는지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칸트 철학의 전통에서 사람은 지극히 가치 있는 존재라기보다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존재이다. 칸트는 가격을 갖는 사물과 존엄성을 갖는 사람을 대립시킨다. 가격을 갖는 다는 것은 비교할 수 있으며 대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이기에 가격을 갖지 않는다. 존엄성의 가격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곧 그것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것이다.[99]

태어난 생명을 환대하는 것은 그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환대받을

---

[96] Henri Jozef Machiel Nouwen, *Reaching Out: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영적 발돋음*, trans. 이상미 (서울: 두란노, 2007), 75.

[97]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사상사, 2015), 207.

[98] 김현경, 193.

[99] 김현경, 215-6.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대는 태어난 생명을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인간은 빈 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난 사람들에 의해 환대를 받았다. 만약 그 환대에 대한 보답을 한다면 불가능하고 계산하여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환대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100]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환대를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로 보았는데 이러한 환대는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라는 정언명령[101]들의 계속되는 협상에 의해 형성된 개념이다.[102] 따라서,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는 구조적인 관계에 있고 이 두 환대는 조건적 환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무조건적 환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환대가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사회적 구조가 조성되어야 하는 조건적 환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03]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환대(hospitality)'의 철학은 환대의 한계에 대해 타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어 타자에 대한 환대를 실천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104]

강남순은 무조건적인 환대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식해야 할 3가지를 다음과 같이

---

[100] 김현경, 215-6.

[101] 한국어 위키백과, "정언명령," last modified April 23, 2017, https://ko.wikipedia.org/wiki/정언명령.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이며, 어떤 주관적 사고를 통한 선행적 목적이나 목표와 같은 수단적 접근과 같은 주관적 사고를 배제한 인간 본연의 목적에 기반한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도덕적 행동이다."

[102]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 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97.

[103] Giovanna Borradori,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Dialogues with Ju"rgen Habermas and Jacques Derrida 테러 시대의 철학,* trans. 손성철 et al.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235.

[104] Borradori, 235.

기술하였다:

> 첫째,"환대의 신학"은 한 인간을 사회문화적 정체성, 정치적 위치나 역량 등과 상관없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 그리고 이 우주에 속한 "동료 시민"으로 보는 "연민적 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대의 신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신분이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얼굴"을 지닌 개별적 존재로 보는 "개별성의 윤리"(ethics of singularity)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환대의 신학"이란 개인적 구제나 관대함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권리"와"책임"에 관한 담론이고 실천이라는 사실이다.[105]

환대는 구제와 연민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중심 주제이다. 이와 같이 환대는 연민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차원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 답게 살 권리가 있고 어느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유지시켜줘야 할 책임이 우리들의 책임이고 이것이 조건적 환대이고 이는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면에서 환대는 언제나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대와 적대는 반대가 아니라 양면성이 있고 같은 개념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환대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환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베푸신 예수의 십자가는 환대의 절정으로 최고의 무조건적인 환대인 것이다.[106] "환대의 신학적 의미를 추론해 볼 때, 신학적으로 환대의 중요성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환대 행위를 인식하게 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107]

볼스윅(Jack O. balswick)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

[105] 김은정, "환대적 학습환경과 기독교교육," *인문학논총* vol. 33 (October 2013): 235.

[106] David W. Anderson, "Hospitable Classrooms: Biblical Hospitality and Inclusive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 Christian Belief* vol. 15, no. 1 (Spring 2011): 235.

[107] Anderson, 13-27, quoted in 김은정, "환대적 학습환경과 기독교교육," *인문학논총* vol. 33 (October 2013): 235.

환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 질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한다.[108]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환대받기 위함이고 이러한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다.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하나님이 고통받고 이방인으로 살아온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환대받은 자로서 타인을 환대하여야 한다고 한다.[109]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환대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인 것이다.[110]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환대에 보답이 되는 것이며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환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환대를 보여주시며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예수의 삶은 무조건적인 환대의 모델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수의 이름으로 환대를 하는 것이며 환대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환대 신학을 질적 연구를 통한 60대 기독교 여성의 4가지 범주의 부부 갈등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B. 환대 신학의 적용

심층 면담을 통해 드러난 60 대 기독교 여성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경험한 네 가지 범주의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첫째, 그들은 가부장제적인 억압아래 가부장적 사고, 성차별 그리고 잘못된 성경관으로 부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둘째, 왜곡된 신앙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 갈등으로부터 회피하고 인내하여 자신을 억압하고 있었다. 셋째, 목회

---

[108] Judith K. balswick and Jack O. balswick, *The Family 크리스천 가정* (서울: 두란노, 1995), 18-37.

[109]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57.

[110] Russell, 24.

돌봄의 한계로 신앙 공동체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지막 넷째, 의사소통의 단절로 무시와 대화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다.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은 환대의 적용을 가까운 관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환대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부터 환대를 적용하는 삶을 산다면 행복한 관계로 발전하고 이에 대한 경험으로 낯선 이방인에게도 환대를 적용할 수 있다.[111] "부부도 처음에는 타인으로 시작했다. 아내는 환대를 기대하면서 수많은 남자들 중 한사람을 찾아 먼 곳에서 찾아온 낯선이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112]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환대가 이루어 져야 타인에 대한 환대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환대는 60 대 부부의 삶에도 꼭 필요한 것으로 남은 생을 부부 서로가 환대를 경험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을 섬기는 환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환대 중 무조건적 환대의 예로 강남순은 성만찬 사건을 들었다:

> 예수의 "무조건적 환대"의 예는 "성만찬"사건에서 극치를 이룬다. 예수는 자신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제공한다. (막 14:22-24) 그런데 사실적 표현이 아닌 상징적 표현으로서의 자신의 "몸"과 "피"를 타자에게 제공한다는 행위가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자신의 "존재 전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으로 타자에게 베푼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의 "몸"과 "피"의 제공이라는 최후의 만찬 사건은 매우 중요한 "절대적 환대"의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113]

또한, 성경에서 예수의 환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

[111] Nouwen, 95.

[112] 손운산, "돌봄의 목회 4. 낯선 이를 환대하라," *기독교사상* vol. 4 (April 2002): 268.

[113]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98-9.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7-19, 개역개정)" 예수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다. 예수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인간을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고 진리로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눈을 열어 광명을 보게 하신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환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무조건적 환대로 나아가기 위해 환대로 가득찬 가정은 개인적 가족적 차원의 변혁만이 아니라 교회적, 사회적 변혁과 변화의 차원으로까지 확장되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환대적 가정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가로막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환대적 삶: 억압에서 해방으로

질적 연구에서 첫 번째 걸림돌은 가부장적인 억압이었다. 왜냐하면 가부장제적인 억압에서 인간 해방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환대적 삶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적인 억압에는 가부장적 사고, 성차별 그리고 잘못된 성경관으로 인한 억압이 있다.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환대의 법을 만드는 것은 가정의 폭군, 아버지, 남편 그리고 어른인 집주인"이었음을 지적한다.[114] 이러한 환대의 법은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가부장적 요소가 많다. 이러한 예로 레비나스 (Emmanuel Levinas)는 환대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희생되는 친밀한 타인인 여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여성은 남성을 도와주는 역할만 허용되기 때문에 환대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고 한다.[115] 과거의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주장이 적용되지만 오늘날 가정에 있는 여성이 과연 말없이

[114] Jacques Derrida, *De l'hospitalite 환대에 대하여,* trans. 진태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150.

[115]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39 (November 2008): 197-9.

이러한 희생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존재라고 하기에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많이 변화하여 이러한 주장을 모든 여성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인 60 대 이상의 여성에게는 친밀한 타인인 "아내" 또는 "어머니"인 "여성"으로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여성 스스로도 이를 내면화하고 있었다._

환대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으로 관용(tolerance)이 있다. 관용은 조건적 환대에 해당되며 이러한 환대는 타자의 입장보다 주인의 관용으로 이루어지고 타자의 동의보다 주인의 입장이 우선한다.[116]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지배자가 일탈하는 피지배자에게 베푸는 행위로 "관용한다고 선언하는 행위" 자체가 가부장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117] "이러한 관용이 가부장적 정신 속에서 수세기 동안 실행되어 왔으며, 관용의 행위는 자비나 은혜 베풀기와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118] 이러한 관용은 60 대 부부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비나 은혜 베푸는 것으로 해석됨으로 평등한 부부 관계로 볼 수 없다. 데리다(Jacques Derrida)에 따르면 조건부 환대인 관용은 타자가 주체의 규범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대를 "초대의 환대"라고 하였다.[119] 이러한 관용은 초대자가 정한 조건에 맞지 않을 때는 손님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으로 가부장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120] 또한,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가정에 돌아오는 경우에도 가사 노동을 여성의 일로 규정 짓는 성차별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여성에게 가정은 또 하나의 일터가 되어 퇴근후 쉬는 남성들과는 차별이 되는 것이다. 60 대 여성에게도 이러한 차별과 가사 노동의 과정으로

---

[116] Michael Walzer, *On Toleration 관용에 대하여*, trans. 송재우 (서울: 미토, 2004), 23-32.
[117] Borradori, 86.
[118]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39 (November 2008): 186.
[119] 김애령, 187-8.
[120]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97.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다.[121] 가정은 따뜻하고 포근한 쉼의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폭력과 억압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되는 가족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 결과 60 대 기독교 여성도 폭력과 억압에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122] 김애령은 무조건적 환대가 내부적인 반성과 함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조건적 환대는 주인 스스로 권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가 자신의 언어를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때 무조건적 환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123]

잘못된 성경관 중 복종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5 장 21-22 절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는 의미이다.[124] 이 말씀은 아내는 남편을 주께 하듯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에 자신을 주심 같이 복종함으로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생명을 주라고 하는 뜻으로 더 큰 사랑의 복종이 된다. 이는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경종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복종만 강요하고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남편에 대하여 성경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지 않고 아내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아 포기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25] 따라서 복종은 상하 위계적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으로 서로 평등성과 동등성이 이루어지고 서로 환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

[121] 최유진, "레티 러셀의 교회론," *장신논단* vol. 48, no. 1 (March 2016): 225-52.

[122] 홍이화,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에 대한 돌봄," *신학과 실천* vol. 46 (September 2015): 585.

[123]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39 (November 2008): 199.

[124]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21-22, 개역개정)

[125]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92.

것이 올바른 복종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복종이 부부 서로에게 향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부의 모습이 될 수 있다.[126]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내어 주는 자아 포기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강남순은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예수가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은, 기독교를 교리적 경계 안에 갇힌 종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살아 있는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 참으로 중요하다.[127]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가부장적 문화가 여전히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남성들이 60 대 부부의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의 권리를 무조건적 환대의 정신으로 자아 포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 포기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성훈은 성경적 결혼에서의 서로 삶을 연합하려는 의지와 헌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결혼 생활은 삶을 연합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결혼을 원만히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결혼 생활은 하나가 되는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통해 연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필요로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한 복음의 정신, 곧 하나님과 배우자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해야 건전한 결혼을 유지할 수 있다.[128]

---

[126] J. Lee Grady, *Ten Lies the Church Tells Women* (Charisma House, 2000; LakeMary, FL), 177, quoted in Janet George, *Still Side by Side: A Concise Explanation of Biblical Equality, 성경에서 찾아보는 남녀 평등을 향한 하나님의 뜻*, 30.

[127]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44.

[128] 최성훈, *섹스와 복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165.

따라서 결혼 생활은 헌신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부부가 서로 환대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질적 연구 결과 60 대 부부가 가부장제적인 억압인 가부장적 사고, 성차별 그리고 잘못된 성경관에서 벗어나 60 대 부부가 서로 평등한 관계가 되고 부부가 연합하려는 의지와 헌신으로 서로 환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건강한 부부로 거듭나게 된다.

2. 환대적 삶: 현실 회피에서 적극적 현실 참여로

환대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실 회피에서 벗어나 적극적 현실 참여로 나아가는 것이 환대적 삶이다. 질적 연구 결과 왜곡된 신앙 범주에서 발견된 주제군은 '신앙으로의 회피'와 '무조건 참음'이었다. 이런 부부 관계에서 원치 않아도 가족 구성원들은 많은 문제로 갈등과 위기를 맞게 된다. 부부 갈등은 결혼 생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잘 겪어야 행복한 부부가 된다. 그러나 60 대 기독교 여성은 이러한 갈등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회피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리하여 60 대 부부가 서로 한 집에서 투명인간으로 사는 부부가 많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60 대 부부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갈등과 불화가 심해지면 극단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129] 이러한 회피는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부부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가장 나쁜 유형이다. 이러한 관계는 처음에는 편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정이 피폐해지고 보이지 않게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많이 빼앗겨 관계가 많이 힘들어진다.[130] 이러한 정서적 단절에서는 부부가 사소한 말에도 서로 갈등이

[129] 최규련,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 12, no. 2 (December 1994): 140.

[130] 박성덕,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109.

생기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심해진다고 한다.[131]

최규련은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대처방안의 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부인이 남편보다 부부간의 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고 부인은 남편에 비해 신앙에 의지, 외부에 도움 요청, 감정 표출, 회피 등의 대처 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남편은 부인에 비해 행동 표출의 대처 방안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132]

회피(avoidance)는 불화가 생겼을 때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자신보다는 상대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질적 연구 결과 가부장적 요소가 강한 60 대 기독교 여성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133] 따라서, 60 대 기독교 여성은 부부 갈등 시 문제에 대한 직면보다 신앙생활로 회피하거나 무조건 참는 경우가 많다. 회피와 비슷한 개념으로 순응이 있다. 존 스튜어트(John R. Stewart)는 회피와 순응은 다른 개념으로 회피는 갈등을 무조건 피하여 겉으로 평화를 유지하지만 순응은 갈등을 즉시 처리하여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주로 여성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질적 연구 결과 60 대 기독교 여성에게도 무조건 참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순응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134] 가트만(John M. Gutman)은 갈등 대처 유형을 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 신비적 대처로 나누고 신비적 대처를 종교적 대처로 보았다. 신비적 대처는 갈등을 대면하지 않고 신비나 종교로 회피하여 의존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았다.[135] 이에 반해 패가먼트(Kenneth I. Pargament)는 종교적 대처방법을 긍정적 대처 방식과 부정적 대처 방식으로 나누었다. 긍정적

---

[131] 백정미, "정서중심 부부치료를 중심으로 부부의 정서적 단절과정과 회복과정 분석," *신학논단* vol. 91 (March 2018): 50.

[132] 최규련,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150.

[133] John Robert Stewart, *Together: Communicating Interpersonally* 소통, trans. 임택균, 서현석 and 김윤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510.

[134] Stewart, 516.

[135] 한숙자, "스트레스관리와 기독교상담," *복음과 상담* vol. 8 (August 2007): 329.

대처 방식은 갈등 시 종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용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적극적 대처 방식으로 바람직한 대처 방식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 대처 방식은 갈등 상황시 교회에 대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 공동체와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회피는 부정적 대처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136] 또, 패가먼트 (Kenneth I. Pargament)는 갈등 대처 방식을 행동 패턴인 능동적 수동적인 면에서 볼 때 의존적, 협력적, 독립적 3 가지 대처 방식으로 나누었다. 의존적 대처 방식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신의 탓으로 돌이고 자신이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 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수동적 사고가 많이 작용한다. 이것은 회피의 모습이다. 그러나 협력적 대처 방식은 '신을 나의 동반자로 여겨 그는 나와 함께 할 때 능력 주시는 분'으로 보고 있어 갈등 시 능동적이고 적극적 대처 방식으로 60 대 기독교 여성에게 필요한 건강한 방식이다.[137]

따라서, 60 대 기독교 여성이 갈등 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협력적 대처 방식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갈등 대처 방식이 된다. 60 대 기독교 여성은 이렇게 갈등을 해결할 때 부부 관계가 해결되고 두 사람이 화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환대적 삶이다. 즉 화해의 증거가 바로 환대인 것이다.[138] 이와 같이 두 사람이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져 치유와 회복이 되면 부부가 변화되어 환대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

[136] 최명심,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대처의 매개역할과 의미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PhD diss., 전남대학교, 2009), 12-4.

[137] 한숙자, "스트레스관리와 기독교상담," 329.

[138] 이희철, "화해의 현상으로서 환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86, no.1 (April 2013): 302.

3. 환대적 삶: 지엽적 돌봄에서 통전적 돌봄으로

지엽적 돌봄의 제약에서 통전적 돌봄으로 확장하게 하는 것이 환대적 삶이다. 60 대 기독교 여성의 질적 연구 결과, 지엽적 돌봄의 제약에서 극복해야 할 것은 비전문성과 비밀 유지였다. 한국 사회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핵가족 시대가 열리고 사회적으로 이혼, 자살, 높은 실업률, 노인 고독사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목회적 돌봄이 모든 세대 모든 계층에서 요구하고 있어 지엽적 돌봄에서 통전적 돌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목회 페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며 목회 돌봄을 주는 평신도 목회적 돌봄 사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39] 왜냐하면 목회자는 교회 사역의 대표자로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평신도가 목회 돌봄의 전문가가 되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바람직한 목회의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평신도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친밀성이 목회자보다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다.[140] 또한, 이런 목회 돌봄의 전문가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연결 고리가 되고 다른 전문 기관과의 연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이끌어 내고 성도들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141] 이러한 목회적 돌봄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영적 결속력을 얻기 위해서는 환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42]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통전적 돌봄으로 주변의 소외당하는 자들을 향해 늘 연민적 시선을

---

[139] 김경수, "'목회적 돌봄사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기독교연합신문*, September 8, 2010,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946.

[140] John Patten, *Pastoral Care in Context 목회적 돌봄과 상황,* trans. 장성식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0), 130.

[141] 김경, "대중의 정신건강을 위한 목회상담: 공공신학으로서의 목회신학적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vol. 36 (September 2013): 355-87.

[142] John Koening,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rans. 김기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9.

가지려고 노력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오오현은 교회에서의 환대의 실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대를 체험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환대의 자유롭고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환대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때 양적·질적으로 성숙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공간'이란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공간일 수도 있다.[143]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대를 체험한 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고 그들을 인정해 주며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자리를 줌으로써 환대가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존 삭스(John Sachs)는 진정한 공동체는 기독교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평등성(equality), 상호성(mutuality), 사랑(affection)의 실천이다.[144] 이 중에서 사랑은 환대를 뜻하며 이러한 무조건적 환대를 통해 타자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의 태도와 말을 통해 비로서 사람이 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리가 생기는 것이다.[145] 캐시 블랙(Kathy Black)은 상호 의존 신학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상호 의존의 신학은 모든 개개인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이들 각자가 어떤 우월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모두가 전체 공동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상호 의존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지체에게 의존해야 함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증언하기 위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역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심을 강조한다.[146]

---

[143] 오오현,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공간으로서 환대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vol. 38 (February 2014): 319-45.

[144] John R. Sachs, *The Christian Vision of Humanity: Basic Christian Anthropology,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1), 38, quoted in 김경, "대중의 정신건강을 위한 목회상담: 공공신학으로서의 목회신학적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vol. 36 (September 2013): 376.

[145]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211-2.

[146] Kathy Black, *A Healing Homiletic: Preaching and Disability 치유 설교학: 설교와 장애,* trans. 이승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55.

이런 상호 의존 신학은 개개인을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인정하고 서로 다른 지체에게 의존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동역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존 코닉(Jone Koenig)은 환대가 자연스러워야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서 모이며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써 교회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연스러운 장소를 만들어 주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실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147] 이러한 환대를 통하여 전문화된 평신도의 목회 돌봄이 이루어지며 지엽적 목회 돌봄의 한계인 비밀 유지와 비전문성이 극복되고 통전적 돌봄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환대적 삶이 되는 것이다.

4. 환대적 삶: 단절에서 공감, 연민, 존중으로

질적 연구 결과 의사소통의 단절에는 무시와 대화 부재가 있었다. 따라서 무시와 대화 부재를 극복하고 공감, 연민, 존중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환대적 삶이다. 부부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중요한 것으로 의사소통의 단절을 진단하면 부부의 일치도를 알 수 있다.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우리 안의 산소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이 없으면 서로 관계가 힘들어 지고 별거나 이혼의 확률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60대 부부에게 많이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단절에 대해 알아보고 극복하는 대안을 살펴보려고 한다.[148] 대화란 부부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질적 연구 결과 60대 부부는 이러한 대화 부재의 세월이 축적되어

[147] Koening,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10.

[148] 윤창섭,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위기극복과 교회활성화"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9.

있어 소통이 단절되고 친밀감인 정서적 유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149] 친밀감 형성을 위해 사랑의 표현이 중요하다. 남성은 여성보다 사랑의 표현이 어려운데 이유는 어려서부터 남성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남성답지 않다는 자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부장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60대 남성은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하고 '꼭 말로 해야 하나?'하는 대답을 하게 된다. 부부의 대화의 목적은 문제의 해결보다 부부를 친밀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화의 부재가 지속되면 친밀한 부부 관계를 가지기 힘들다. 이와 같이 부부간에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친밀감 형성과 정서적 유대가 생기고 환대가 이루어진다.[150] 오덴(Amy G. oden)은 환대가 타자의 필요뿐 아니라 타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치를 인정해 주며 존경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필요한 환대로 부부가 서로 포근한 공간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환대가 이루어지고 친밀감이 형성된다.[151] 메조리 톰슨(Majorie Tompson)은 환대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환대란 나의 공간 속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그리고 솔직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자유롭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부드럽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고, 그 사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환대는 곧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152]

이처럼 환대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부부간에 꼭 필요한 것이다. 카렌 메이스(Karen Mains)도 환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가정에서조차 편안함과 환대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환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

[149] 윤창섭,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위기극복과 교회활성화," 9.

[150] 윤창섭, 65.

[151] Amy G. Oden, *And You Welcomed M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14, quoted in 손성수, "특집: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기독교대학에서의 환대의 적용 연구," *대학과 선교* vol. 11 (November 2006): 3.

[152] 오오현,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공간으로서 환대에 관한 소고," 319-45.

사랑과 배려 그리고 존중이 일어나서 훈련이 되어야 가정 밖의 타인에게도 환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153] 이러한 환대적 부부 관계를 정민용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부부 관계는 서로 헌신된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부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관계를 그려내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려내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사랑 관계는 충만한 관계입니다. 완전한 충만이라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154]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부부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 완전하고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 결혼이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창2:24)로 연합이란 히브리어로 "다바크(דבק)"로서 "매달려 붙다," "가깝게 두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 외에 정서적 유대감으로 연합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155] 이와 같이 부부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환대적 부부 관계가 되면 영적인 동반자가 된다. 팀 켈러(Timothy Keller)는 부부가 영적인 동반자가 되었을 때의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영적인 동반자와 함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가는 여정에 충실하다면 양상은 전혀 달라진다.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며 마치 잘 깎고 다듬어 세팅한 다이아몬드를 보듯,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156]

이와 같이 영적 동반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어 환대를 실천하는 부부가 되면 서로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더욱 배우자가 소중하게

---

[153] Karen Mains, *Open Heart Open Home 행복으로 초대하는 오픈 홈* (서울: Ivp, 2004), 39.

[154] 정민용, *결혼, 이혼, 재혼: 사랑안에서 하나* (수원: 도서출판 영음사, 2014), 76.

[155] 최성훈, *섹스와 복음,* 165.

[156] Timo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팀켈러 결혼을 말하다,* trans. 최종훈 (서울: 두란노, 2014), 226.

여겨진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머무신다. 따뜻한 환대가 있는 가정은 가족이 서로 인격적으로 도우면서 힘이 된다. 이러한 환대는 부부가 먼저 환대적 관계가 되어야 가족을 환대하는 힘이 생긴다.[157]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납하는 가정이 되어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곳이다.[158]

살아있고 성숙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환대는 실천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환대를 경험해야 사회에서도 환대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대 신학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나는 질적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가지의 갈등들이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60 대 부부들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들을 겪고 있는 모든 삶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60 대 부부의 삶에 환대 신학이 적용되면 첫째, 가부장제적인 억압에서 해방의 삶으로 변화된다. 둘째, 왜곡된 신앙에서 올바른 신앙으로의 변화된다. 셋째, 지엽적 돌봄의 삶에서 통전적 돌봄의 삶으로 확장된다. 넷째, 단절된 삶에서 공감과 연민, 존중의 삶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환대 신학의 적용을 통해 더 이상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환대하며 치유와 화해를 경험하여 자아통합적 부부의 삶을 사는 것이 60 대 부부의 삶이다. 환대로 가득찬 가정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과 친교의 떡을 떼는 나눔과 화목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 가정에서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60 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를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환대적 삶이 환대적 부부 예배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

[157] Nouwen, *Reaching Out,* 98.

[158] Kathy Black, *A Healing Homiletic: Preaching and disability 치유 설교학: 설교와 장애,* trans. 이승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54.

60 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는 해방과 적극적 현실 참여, 통전적 돌봄, 공감과 연민, 존중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천 신학의 장이다. 부부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60 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로 부부가 함께 하는 영적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아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부부 관계에서의 환대를 경험하고 기존 목회로는 닿을 수 없는 한계를 채워 나가야 한다. 교회는 환대가 무엇인지 배우고 연습하고 가르치는 곳이라면 가정은 환대를 실천하는 곳이다. 이렇게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에 안식을 주는 환대의 공간이자 예배 처소이다. 그렇다면 환대적 부부 예배는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Chapter IV
환대적 부부 예배

A. 환대적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표현이요, 마음의 표현이다."[159] 환대적 삶이 환대적 예배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태어난 새 생명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간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이다. "언어적으로 예배는 구약 성경에서 "아밧"(עָבַד: abbat)이란 말로 표현되었고, 그 말은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160] 오늘날 예배의 개념은 섬김과 봉사의 의미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여신 은혜를 가리켜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 주신 일로 이해한 데서 나온 말이다.[161] "기독교의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에 앞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자기 계시의 행위로 발생되는 만남이다."[162] 이렇게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 것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베푸신 은혜의 상기와 신뢰의 회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만남의 공간인 것이다. "기독교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곧, 들려지는 말씀(설교)과 보이는 말씀(성례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의 백성을 부

[159] 정준,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한 신앙의 질적 성장 연구," 34.
[160]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10), 87.
[161]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88-9.
[162] Paul W. Hoon, *The integrity of Worship* (N.Y: Abingdon Press, 1971), 77, quoted in 최진봉,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으로서의 예배," *신학과 실천* vol. 52 (November 2016): 10.

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다."[163] 이와 같이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서 이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로 계시의 지평이 확대되어야 한다.[164] 다니엘 밀리오레(Daniel L. Migliore)는 "삼위일체 신앙의 출발점 혹은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 성령에 의해 세상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고 하였다."[165] 몰트만(Juergen Moltmann)은 삼위일체 중심적 예배의 요소로 기원의 삼위일체, 보냄의 삼위일체, 영광의 삼위일체 3가지로 구분하였다. 기원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역사 안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나님 안에 기원적 조건을 말하며 보냄의 삼위일체는 기원적 조건이 역사 속에 나타난 아들과 성령의 안으로의 파송을 뜻한다. 영광의 삼위일체는 종말론적 목적의 의미는 하나님에서의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연합이라고 하였다.[166] "기원의 삼위일체는 온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보냄의 삼위일체에 영향을 주며 보냄의 삼위일체의 사역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보냄의 삼위일체는 종말의 때에 영광의 삼위일체로 변화한다고 하였다."[167] 기원의 삼위일체에서는 성부가, 보냄의 삼위일체에서는 성자가, 영광의 삼위일체에선 성령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정의와 형태가 삼위일체적으로 정립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성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168] 리처드 보캄(Richard Bauckham)은 몰트만(Juergen Moltmann)의 삼위일체론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의

---

[163] John h.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 Way of Being the Christian Community* (Atlanta: John Knox press, 1978), 175, quoted in 최진봉,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으로서의 예배," 11.

[164] 이찬석, "몰트만의 삼위일체론과 기독교 예배," *신학과 실천* vol. 46 (September 2015): 64.

[165]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기독교조직신학개론*, trans.신옥수 and 백충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129, quoted in 이찬석, 64.

[166] Juergen Moltmann, *Blended Worship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trans. 김세광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04-5.

[167] 박만, *현대 삼위일체론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78.

[168] 이찬석, 74.

창조 세계의 해방을 통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의 목적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삶 속에 참여함으로써 창조 세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하였다."[169] 예배 신학자 알멘(J. J. von Allmen)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은 기독교 예배의 주체이면서 대상이라고 말하며 그는 섬기면서 동시에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였다.[170]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의 속성을 높이며, 삼위일체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찬송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예배이다. 이런 예배의 삼위일체론은 환대에도 적용된다. 리차드 루시엔(Lucien Richard)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함, 섬김, 고난 그리고 긍휼 사역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환대라고 하였다.[171]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없이 환대해 주시고 예수는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환대를 보여주시기 위해 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 성령은 우리가 환대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환대적 부부 예배에서 만나고 환대함으로써 환대적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환대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환대가 무엇인지 배우고 연습하고 가르치는 곳이며 가정과 일터는 환대가 무엇인지 실천하는 곳이다. 우리의 미션은 예수의 이름으로 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시작된 가정은

---

[169]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Moltmann 몰트만의 신학,* trans. 김도훈 (서울: 크리스찬헤럴드, 2008), 262, quoted in 이찬석, 83.

[170] J. J. von Allme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예배학원론*, trans. 정용섭 et al.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184, quoted in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120. And Bauckham, 262, quoted in 이찬석, 83.

[171] Richard Lucien, *Living the Hospitality of God* (N.Y: Paulist press, 2000), 55-73, quoted in 손성수, "특집: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기독교대학에서의 환대의 적용 연구," 102.

가정의 역할인 영적 성장과 경건 훈련을 위해,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에서는 부부만 드리는 가정 예배라는 차원에서 '환대적 부부 예배'로 부르기로 한다. 지금까지 가정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의 참여자가 가족 구성원으로 주로 자녀들이 포함되고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신앙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60대 부부를 위한 특화된 가정 예배를 대신하여 부부 예배라는 새로운 용어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부부 예배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본 프로젝트에서 처음 사용하는 것이지만 자녀가 출가하고 60대 부부만 드리는 가정예배를 지칭할 때 부부 예배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김남중 교수와 환대적 부부 예배 안에 60대 부부의 상황을 특정화 할 수 있는 내용과 실천들이 더 많이 보강되어야 함을 지적한 김용환 교수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 처음 사용한 부부 예배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가정 예배에 대한 선행 연구 중 부부 예배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접목하여 환대적 부부 예배를 설명하려고 한다.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움으로써 60대 부부가 서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서로 환대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한다. 환대적 부부 예배는 치유와 화해, 회복 그리고 변화를 예배의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들을 서로가 경험하도록 디자인하는 예배이다. 나는 아래에서 60대 부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B. 60 대 부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

내가 부부 예배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남편과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남편이 부부 예배를 제안하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종교가 서로 다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사랑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놓고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 그

이후 갈등은 해결되었고 나는 부부 예배를 통해 남편의 사랑과 공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에 감동이 되어 부부 갈등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부 예배가 가능한 것은 부부 양쪽의 동의와 수용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어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환대적 예배가 어렵다고 본다.

질적 연구 결과 환대적 부부 예배에서 극복되어야 할 네 가지는 첫째, 가부장적 억압이다. 둘째, 현실 회피와 셋째, 지엽적 돌봄의 한계이며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의 단절이다. 이상 네가지가 극복되고 나서 경험되어야 할 네 가지는 첫째, 인간 해방으로의 환대와 둘째, 적극적 현실 참여로의 환대이다. 셋째, 통전적 돌봄으로의 환대이며 넷째, 공감과 연민과 존중으로의 환대이다. 이와 같이, 환대적 부부 예배는 극복되어야 할 네가지 요소와 경험되어야 할 네가지 요소가 예배에 반영되어, 치유, 화해, 회복,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이다. 이러한 환대가 이루어지는 가정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가정은 가장 오래된 인간 사회로서 인류의 창조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졌다. 자의적인 결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가족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가족으로 지음 받았다. 모르던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이다.[172]

호레스 부쉬넬(Horase Bushnell)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깃든 곳이며 신앙적 부모나 자녀 사이의 관계와 분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의 은총의 매개라고 말하였다."[173] 리처드 벡스터(Richard Baxter)는 가정을 '작은 교회'이자 '거룩한 공동체'로 정의하며 매일의 삶의 중심축이요, 친밀함과 기쁨의 한결 같은 원천으로서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

[172] James W. Alexander, *Thoughts on Family Worship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trans. 임종원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3), 13.

[173]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22, quoted in 정준,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한 신앙의 질적 성장 연구"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2013), 20.

말하였다.[174] 브루너(Hinrich E. Brunner)는 성경적 가정에 대해 “진정한 사랑의 참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였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근원이며 원형으로써 이 기본적인 공동체의 권리는 다른 어떤 공동체, 특히 국가의 권리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였다.[175]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은 행복한 보금자리요 예배하는 책임과 특권과 영광이 머무는 곳인 것이다.[176]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환대를 실천하는 이상적인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환대적 부부 예배는 필요하다. 환대적 부부 예배는 부부 사이의 공감과 연민, 존중을 증진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부부 관계의 핵심은 가정을 세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사랑에 대한 화합된 응답에서 비롯된다. 화합된 응답이 가능하려면 정기적인 만남의 공간이 필요하다. 60 대 부부는 가부장적인 교회, 가정, 사회에서의 영향으로 부부 관계가 소원하고 많은 부부가 각방을 쓰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부부가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생애(삶) 자체가 지속적인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다.[177] 이러한 “기독교적 행동은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힘을 얻을 때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178] 매튜 핸리(Matthew Herry)는 만일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질

---

[174] Richard Baxter, *A Christian Directory 하나님의 가정,* trans. 장호준 (서울: 복있는사람, 2012), 10.

[175] 이향숙, "가정 예배가 가족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심리상담* vol. 1 (January 2009): 154.

[176] 정준,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한 신앙의 질적 성장 연구”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2013), 20.

[177] 김상훈, "특집: 가정 예배-성경에서 보는 가정 예배," *상담과 선교* vol. 36 (June 2002): 13.

[178] 김상훈, 13.

수 있다면,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179] 이와 같이 가정은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인간은 환대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예수처럼 환대를 하기 위해서 성화에 이르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이와 같이 환대적 관점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환대적 부부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1. 해방으로의 환대적 부부 예배

환대적 부부 예배는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인간 해방을 목적으로 하고 인간 해방을 경험하는 예배이다. 기존의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명숙은 가정은 하나님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곳이라며 가정 예배에서의 가장의 역할을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감을 가지며, 또한 가족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80] 도로시 마틴(Doroghy Martin)은 가정 예배의 인도는 아버지가 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어머니의 역할은 조력자라고 지칭하였다.[181] 이러한 기존 가정 예배의 가부장적 요소는 인간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환대적 부부 예배에서 극복되어야 한다. 환대적 부부 예배의 예배 인도자는 남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배 인도자의 평등성이 실현되는 예배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성경도 가부장적인 환경 안에서 남성의 언어로 기록되었는데 이를 악용할 위험이 남성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남편이 먼저 남성의 언어와 젠더를 둘러싼 권력에의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김세윤은 그동안 설교와 성경 해석을 독점해

---

[179] Matthew Herry, *A Church in the House: Or Family Religion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trans. 이영자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15), 13.

[180]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예배학* (서울: 요단출판사, 2001), 38.

[181] Dorothy Martin, *Creative Family Worship* (Chicago: Mood Press, 1976), 23, quoted in 정정숙, "특집: 가정 예배-가정에서의 영성훈련," *상담과 선교* vol. 36 (June 2002): 88.

온 남자들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가부장적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해 온 말장난을 멈춰야 한다고 하였다.[182] 이렇게 남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성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위계적인 부부 관계에서 벗어 날 때 인간 해방으로의 환대적 부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환대적 부부 예배에서 여성은 무조건 수용이 환대가 아니라 여성이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하고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것이 조건적 환대이고 정의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것이 부부 예배에서도 나타나야 하고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휠러(Amy Wheeler)는 다음과 같이 상호 희생적이며 평등한 부부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 복음에 대한 헌신이 부부의 관계를, 단순히 가부장적 상하 관계를 뛰어넘어, 상호 희생적인 관계, 즉 초 문화적 관계로 재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 순위에 따라 인정되고, 확인되고, 거부되고, 또한 지정되는 것이다.[183]

이러한 평등한 부부 관계가 부부 예배 중에 실현되는 것이 환대적 부부 예배이다. 이런 상호 인간 해방적 부부 관계에서 부부 모두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부부가 함께 드리는 환대적 부부 예배는 단순히 부부가 서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문제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전서 3:7, 개역개정)"는 말씀대로 아내와 함께 은혜를 이어받으며 인간 해방과 자유를 향한 실천적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

[182]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95-6.

[183] Amy Wheeler, "Christians and Family," in *The Oxford Handbook of Theological Ethics*, eds. Gilbert Meilaender & William Werpehowski (New York: Oxford, 2005), 349, quoted in 하재성, "결혼에서의 부부 폭력과 상호성의 원칙," *복음과 상담* vol. 10 (October 2008): 272.

부부의 교제를 목표로 한다. 부부가 서로의 효과적인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하나님과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부부 관계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다. 십자가는 얼마간의 희생과 고통분담이 아니라 인간 해방과 자유를 향한 전적인 방향전환을 의미한다.

질적 연구 결과 60대 기독교 여성은 가부장적 사고와 성차별 그리고 잘못된 성경관으로 억압되어 있었다. 참여자 F에 의하면 남편은 자기 말에 무조건 동의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내의 의사를 무시한 자기 중심적 가부장적 사고에 기인한 행동이다. 참여자 E의 경우에도 아내를 하등한 존재로 여기고 성차별이 심하며 언어 폭력이 심하여 아내를 자기 소유로 여기고 있어 억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질적 연구 결과 고통받고 있는 아내들이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하여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남편의 가부장적 억압에 대해 아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용기있게 남편에게 이야기한다. 이 때 아내는 남편에게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자신이 힘들다고 자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한다. 이때 부부가 서로 정서적으로 만나게 되어 깊은 교감이 일어날 수 있다.[184]

이와 같이 60대 기독교 여성이 젊었을 때는 가부장적인 남편이 두려워 이야기를 못했지만 이제는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회피하지 말고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한다. 이러한 아내의 요구에 따라 남편은 무조건 자신의 뜻에 따르는 것을 지양하고 아내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한다. 또, 성차별적인 요소인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아내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거나 식탁을 함께

[184] 박성덕,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183.

차리는 것이 환대적 부부의 모습이 된다. 따라서 환대적 부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자들로서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전적인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의 실천으로 해방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아통합적 부부의 모습이다. 환대적 부부 예배는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이므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기도한다. 이러한 환대적 부부 예배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부가 가부장적 상하 관계를 벗어나 평등한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2. 적극적 현실 참여로의 환대적 부부 예배

환대적 부부 예배는 현실 회피에서 적극적 현실 참여로 나아가는 예배이다. 신앙의 이름으로 갈등을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환대적 부부 예배에서 부부가 갈등을 노출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는 갈등을 겪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갈등을 기도나 참는 것으로 회피하지 않고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하여 갈등과 대면하여 함께 기도하고 대화함으로 해결하도록 한다.[185] 환대적 부부 예배는 부부가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갈등과 스트레스, 개인 문제등을 나누고 서로 돌보는 적극적인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때 부부간의 신뢰가 쌓이고 더 큰 갈등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186] 이와 같이 부부가 함께 문제를 의식하고 나아갈 때 적극적 현실 참여가 가능해진다. 질적 연구 결과 60 대 기독교 여성은

[185] 이향숙, "가정 예배가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심리상담* vol. 1 (November 2009): 154.
[186] 이향숙, 171-2.

갈등을 회피하거나 무조건 참음으로써 적극적인 현실 참여적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 60 대의 남편들은 갈등이 있다고 하면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고 대화를 회피하는데 갈등은 성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환대적 부부 예배시 말씀을 통하여 갈등에 대한 시각을 바꾼다. 그리하여 갈등 해결 후 부부가 더 연합되고 결속된다는 경험을 서로 나누어 본다. 나의 경우도 부부 갈등 시 남편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는 말로 갈등을 회피하였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여겨 더 이상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는 평화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정작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남편들의 태도에 대해 박성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부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남편의 회피적인 반응을 병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내가 쉽게 화를 내는 것을 성격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187]

따라서 이런 회피는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혼자 해결하여 겉으로 평화를 유지하지만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188] 이와 같은 경험을 나도 한 적이 있는데 갈등시 서로 회피하고 대화가 없어지자 자녀들이 없는 가정에서 나 자신이 투명인간으로 여겨지고 외로움이 커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울증까지 간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으로 비추어 회피는 내가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사라져 자존감이 낮아지고 남편이 나를 거부하는 것으로 느껴졌다.[189] 따라서 60 대 기독교 여성은 환대적 부부 예배 중 적극적 현실 참여로 용기를 가지고 남편과 갈등을 대면해야 한다. 그리하여 부부 예배 중 서로 회피하게된

---

[187] 박성덕,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175.

[188] 박성덕, 103.

[189] 박성덕, 270.

이유를 나누고 성경에서 갈등에 대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한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였지만 이제는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하여 60 대 부부인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이와 같이 환대적 부부 예배 시 현실 회피에서 적극적 현실 참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적극적 현실 참여를 위한 대화로 죽음 준비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죽음 준비는 죽음의 수용과 함께 중요한 일을 처리하며 장례식 계획을 세우고 유서 쓰기를 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와 죽음에 대한 계획은 60 대 부부에게 꼭 필요한 준비로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환대적 부부 예배의 모습이다.[190]

3. 통전적 돌봄으로의 환대적 부부 예배

환대적 부부 예배는 지엽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전적 돌봄으로 확장되는 예배이다. 지엽적 돌봄의 한계는 비전문성과 비밀 유지이다. 질적 연구 결과 60대 부부는 지엽적 돌봄의 한계에 부딪혀 있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돌봄을 지엽적으로 한정하였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가 급속적으로 발전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높은 이혼율과 자살, 독고 노인 문제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하여 통전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목회적 한계가 있어 이런 전문적인 통전적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필요하며 평신도 전문 사역자의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부부에게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 이들 부부가 환대적 부부의 삶으로 나아가면 이러한 환대가 사회적으

[190] Billy Graham, *Facing Death and the Life After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죽음이란 무엇인가*, trans. 지상우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179-86.

로 확장되어 통전적 돌봄이 될 수 있다.[191] 이것은 60대 부부도 가정에서의 돌봄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통전적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부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평신도 전문가가 된다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는 통전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 나의 경험으로 남편과 함께 7년간 가정 교회를 섬긴 적이 있다. 가정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부부을 전도하였는데 매주 한 번씩 우리 가정을 오픈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가정 교회를 통해 부부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내어 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고 남편의 지인인 가정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전문적인 부부 관계에 대한 강의도 듣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회의 한계인 비밀 유지와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통전적 돌봄으로 그 영역이 확장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통전적 돌봄을 위해 환대적 부부 예배시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 타인에게 털어 놓기 힘든 부부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부부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환대적 부부 예배는 두 사람만의 영적 공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192] 이와 같이 환대적 부부 예배는 비밀 유지의 부담이 없고 부부가 함께 고통을 나누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돌보는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예배하는 교회와 환대적 부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지엽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통전적 돌봄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한 가정에서의 변화가 교회로 그리고 사회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다. 그리하여 환대적 부부의 관점이 가정을 넘어 차별, 의심, 무시, 억압 그리고 배제가 있는 사회 전체의 통전적 돌봄의 관점으

[191] Balswick, *The Family 크리스천 가정,* 18-37.

[192] Herry, *A Church in the House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144.

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통전적 돌봄의 경험으로 현재 나와 남편은 매달 독거 노인들의 무료 급식을 돕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의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삶이 사회에 대한 봉사로 이어질 때 60대 부부의 환대적 삶이 되고 통전적 돌봄으로의 자아통합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나의 꿈이 있다면 남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다. 60대 부부는 자녀 양육과 직장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선교하기 좋은 나이이다. 따라서 남는 시간을 선교에 활용하여 통전적 돌봄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부가 함께 남은 생을 보낸다면 노년기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부부는 환대적 부부 예배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하여 60대 부부에게 꿈이 생긴다면 공통된 목표를 향한 환대적 삶이 되고 노년기 자아통합적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4. 공감, 연민, 존중으로의 환대적 부부 예배

환대적 부부 예배는 의사소통의 단절로부터 공감과 연민, 존중으로 나아가는 예배이다. 질적 연구 결과 의사소통의 단절은 무시와 대화 부재였다. 60대 부부는 의사소통의 단절로 환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소통 단절은 대화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해 삶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고 친밀감을 회복한다면 부부가 환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해 부부가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193] 코헛(Heinz Kohut)은 부부 서로가 치유와 변화를 위해 의사소통 중 공감적 경청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93] 김주연, 진보래 and 김주환, "생활 만족도와 감사 성향이 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 변인으로," *한국언론학보* vol. 58, no. 4 (August 2014): 239-40.

이것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대화시 필요하다.[194] 이런 공감적 경청을 통한 부부의 삶의 나눔이 있는 환대적 부부 예배는 부부 사이의 일체감이 생기고, 서로에게 치유적 효과를 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한다. 나는 공감적 경청에 대한 경험으로 부부 갈등 시 내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때 남편에게 "~구나, 구나"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이때 남편은 마음이 불편한데도 요구한데로 해주어 내 마음이 풀리고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고 내 편이라는 든든함과 친밀감이 생겨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감사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남편은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안아주기'를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 60대 부부는 이와 같이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해 대화 부재에서 벗어나고 서로 소통을 함으로써 친밀감을 가지게 되어 환대적 삶을 살게 된다. 환대적 부부 예배시 부부 서로에 대한 '의식(ritual)'이 중요하다. 이것은 가족 치료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의식적으로 의식을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차츰 익숙하게 되고 부부 관계가 살아나게 된다. 이러한 의식으로는 포옹, 발 주물러 주기, 세족식, 사랑한다고 말하기 등이 있다.[195] 나의 경우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잘 잤어" 하고 물어주는데 이런 아침 인사가 부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기분이 좋아져서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다. 이와 같이 60대 부부가 사랑을 표현하고 의식(ritual)을 통해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 환대적 부부 예배는 꼭 필요한 예배이다. 환대적 부부 예배 시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로 서로 좋아하는 말씀과 찬송을 나누고 좋아하는 이유나 추억을 서로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대화의 부재에서 벗어나 친밀한 부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환대적 부부 예배가 실천되기 위해 교회에서 60대 이상

---

[194] 백미숙, "의사소통적-치료적 관점에서 듣기와 공감적 경청의 의미," *한국독일언어문학회* vol. 34 (December 2006): 44.

[195] 박성덕,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264-5.

부부만을 위한 부부 예배 메뉴얼을 개발하여 환대적 부부 예배시 활용하게 한다. 예를 들어, 대화 나누는 법,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여 직접 적용하게 한다. 또한, 자아통합의 관점에 맞는 주제를 하나씩 선택하여 60대 부부가 대화를 나누게 한다면 더 많은 60대 부부의 부부 관계가 회복되며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데니얼 아킨(Daniel L. Akin)은 에베소서 5장 21-33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순종과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부부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196] 따라서 환대적 부부 예배에서 서로 소통이 되어 대화가 이루어지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되어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환대적 삶이 된다. 또한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하여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내재하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환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60대 부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에서 경험되어야 할 4가지 즉, 해방, 적극적 현실 참여, 통전적 돌봄, 공감과 연민 그리고 존중이 이루어지면 60대 부부는 자아통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아통합의 삶이란 60대 부부가 대화를 통하여 지난 날을 반추하면서 비록 지난 날이 60대 부부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후회되는 삶일지라도 지난 날을 긍정적으로 보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잘 살아왔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현재의 삶을 재해석하는 삶이다. 그리하여 지금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수용함으로써 살아있음에 서로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은 60대 부부에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상대의 삶도 존중하는 것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리하여 자아통합이 된 부부는 지난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로 살아왔음을 감사하는 자아통합적 부부의 모습이 된다. 또한 자아통합이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196] 서혜란, "관계성 위기 시대의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정보* vol. 58 (September 2018): 146.

사라지고 죽음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60대 부부는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한다. 이것은 영생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영적 순례를 하는 것이다.[197] 이러한 자아통합의 덕목은 지혜로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유산을 남겨 주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지혜로 60대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남겨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할 것을 60대 부부가 환대적 부부 예배시 의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가이드 라인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녀나 주위 사람에게 고통을 남겨주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60대 부부가 의논한 내용을 유서로 남겨두면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적 환원에도 도움이 된다.[198] 이와 같이 60대 부부는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부부로 하나가 되고 자아통합적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60대 부부의 꿈이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부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197] Graham, 187.

[198] Graham, 186.

# Chapter V
# 결론 및 제언(Conclusion and Suggestion)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성장해온 60 대 기독교 여성들은 부부 관계 속에서도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60 대 기독교 여성은 오랜 신앙 경력을 가진 여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부 생활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을 꾸려야 하는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들이 부부 관계에서 갈등 발생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적 연구의 심층 면담을 통해 4 개의 범주와 9 개의 주제군 24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한 4 가지 범주의 갈등을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60 대 기독교 여성들은 첫째, 가부장제적인 억압에서 가부장적 사고와 성차별, 잘못된 성경관에 의한 억압을 경험하고 있었고 둘째, 현실 회피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신앙으로 회피하고 무조건 참음으로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고 있었다. 셋째, 지엽적 돌봄의 한계로 목회자에 대한 비전문성이 지적되었으며 비밀 유지가 지켜지지 못해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불신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넷째, 의사소통의 단절로 무시와 대화 부재를 겪고 있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나는 60 대 기독교 여성들의 부부 갈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 발견된 네 가지 범주의 갈등이 환대 신학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60 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를 목회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하여 60 대 기독교인 부부는 기독교 신앙인으로 가정에서 부부가 동등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회복하여 부부가 서로 돕고 환대하는 환대적 가정이 탄생되며

신앙적으로 성숙한 부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제시된 60 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해 60 대 기독교 여성 및 부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대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연구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환대적 부부 예배를 수정, 보완해 갈 필요성이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60 대 기독교 여성들의 갈등이 환대 신학으로 치유되고 환대적 부부 예배를 실천하여 환대적 가정이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아름다운 가정이 많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 본다.

나는 이 논문을 쓰면서 60 대 기독교 여성의 삶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나의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 동안 40 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의 갈등 시 갈등을 대면하지 못하고 기도로 회피하거나 참았다. 이러한 나의 모습이 올바른 신앙인인 것으로 착각하였다. 이러한 나의 의식이 바뀐 것이 2018 년 10 월 31 일, 논문지도를 위한 김남중 교수와의 만남이었다. 나는 김 교수와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왜곡된 신앙이고 회피의 이유가 두려움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건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고 나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나의 두려움은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부부 갈등이 있은 후 친정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시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신 적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갈등이 있으면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갈등을 회피하거나 참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나의 내면의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나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제는 회피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부부 갈등 시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었다. 또한, 처음 출발은 60 대 기독교 여성의 부부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질적 연구 결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내용임을 관찰하게 되었다. 60 대 기독교 여성의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여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억압, 차별, 소외, 단절, 잘못된 신앙은 한국 교회에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고 모든 계층과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가 한국 교회와 사회의 인식을 변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60 대 부부를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를 제시했지만 모든 세대의 부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환대적 부부 예배를 통해 한국 교회 예배의 패러다임을 재고하고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60 대 여성의 부부 갈등이 클레어몬트(Claremont) 실천 신학의 정신인 갈등, 치유, 회복, 변화되는 삶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실천 신학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60 대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클레어몬트(Claremont)를 통해 실천 신학의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 졌고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지도 교수진의 코멘트를 따라 논문을 쓰다 보니 처음에는 막연했던 논문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학문에 대한 즐거움까지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도 교수진의 코멘트는 나를 이론이 아닌 실천 신학의 길로 안내해 주었고 진정한 환대의 실천을 통한 모범을 보여주어 김용환 교수와 김남준 교수는 나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환대 신학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환대가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요한 1 서 4 장 16 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실천 신학의 정신임을 깨닫게 되었다. 본 논문을 쓰는 동안 갑작스러운 친정 어머니의 소천으로 논문이 중단될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구두 시험때 두 분 지도 교수의 위로와 환대로 다시 힘을 얻고 논문을 완성하게 되어 두 분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부록: 연구 참여 동의서
## Appendix: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갈등, 치유, 변화를 주제로 하는 실천 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유영혜입니다. 저는 "60대 이상의 노년기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환대적 부부 예배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에서 실천 신학을 담당하시는 김용환 교수의 지도 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 (yhkim@ptsa.edu)으로 연락하시거나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인터뷰에 2~3회기 각 회기 당 약 60분 정도에 거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녹음된 모든 내용과 기록은 연구목적에만 사용될 것이고 반드시 익명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귀하의 교회에도 인터뷰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등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 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이름, 연락처, 소속 단체나 교회 등)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오직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논문에 귀하의 인터뷰 내용이 기재될 때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 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이 논문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60대 이상의 노년기 부부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면담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더 나아가 60대 이상의 노년기 부부에 대한 새로운 목회적 방향성을 설정하게 하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유영혜의 전화번호 ***-****-**** 혹은 이메일 uy53sun@hanmail.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18-009)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 _____

*날짜:*_____

*연구 참여자의서명:* 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

*날짜:*_____

*연구자의서명:* _____

# 참고문헌
# Bibliography

1 차 자료(Primary Resource)

[한서]


강남순. *젠더와 종교*. 서울: 동녘, 2018.

_____.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 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_____.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 영성, 생명*.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4.

강호숙. *여성이 만난 하나님*. 서울: 넥서스, 2016.

김규수 and 오현숙. *가족치료*. 서울: 양서원, 2008.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서울: 두란노, 201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_____. *질적연구방법론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용태.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200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사상사, 2015.

박경란, 이영숙, and 전귀연. *현대가족학*. 서울: 도서출판 신정, 2001.

박 만. *현대 삼위일체론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박성덕,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서울: 지식채널, 2011.

변화순. *가족정책으로 바라본 여자 남자 이야기*. 파주: 교육과학사, 2010.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10.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 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2.

이근호. *성서로 본 부부 갈등과 가족문제 해결*.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9.

이동옥. *묵주반지를 낀 페미니스트*. 서울: 현암사, 2018.

임경수. *인간발달 이해와 기독교 상담*. 서울: 학지사, 2013.

정민용. *결혼, 이혼, 재혼: 사랑안에서 하나*. 수원: 도서출판 영음사, 2014.

정석규. *구약성서로 읽는 갈등과 화해.* 서울: 한들출판사, 2010.

정태기. *위기과 상담.* 서울: 크리스찬치유목회연구원, 2005.

최광현. *가족의 두얼굴.* 서울: 부키, 2012.

최성훈. *섹스와 복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번역서]

Adams, Jay E.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Bible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혼·재혼.* Translated by 송영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Alexander, James W. *Thoughts on Family Worship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Translated by 임종원.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3.

Baxter, Richard. *A Christian Directory 하나님의 가정.* Translated by 장호준. 서울: 복있는사람, 2012.

Beckham, William A. *The Second Reformation: Reshaping the Chur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제 2 의 종교개혁.* Translated by 터치코리아. 서울: NCD, 2001.

Billy Graham. *Facing Death and the Life after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죽음이란 무엇인가,* Translated by 지상우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Black, Kathy. *A Healing Homiletic: Preaching and Disability 치유 설교학: 설교와 장애.* Translated by 이승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Borradori, Giovanna.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Dialogues with Ju"rgen Habermas and Jacques Derrida 테러 시대의 철학.* Translated by 손성철, 김은주, and 김준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Bounds, E. M. *Prayer and Revival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Translated by 이용복. 서울: 규장, 2009.

Calvin, Joh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강요선.* Translated by 이종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Carroll, Anne Kristin. *Together Forever 부부 갈등과 치유.* Translated by 박진우.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Clinebell, Howard. *Well Being 전인건강.* Translated by 이종헌 and 오성춘.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1995.

Derrida, Jacques. *De l'hospitalite 환대에 대하여.* Translated by 진태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Gottman, John M.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Translated by 임주현. 서울: 문학사상사, 2002.

Herry, Matthew. *A Church in the House: Or Family Religion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Translated by 이영자.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15.

Hill, Cherie. *Empty 공허함.* Translated by 배응준. 서울: 규장, 2016.

Keller, Timothy. *The Meaning of Marriage 팀켈러 결혼을 말하다.* Translated by 최종훈. 서울: 두란노, 2014.

King, Nigel.,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lated by 김미영, 김윤주,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Koening, John.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ranslated by 김기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Mains, Karen. *Open Heart Open Home 행복으로 초대하는 오픈 홈.* Translated by 강선규. 서울: Ivp, 2004.

Moltmann, Juergen. *Blended Worship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Translated by 김세광.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Nouwen, Henri Jozef Machiel. *Reaching Out: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영적 발돋음.* Translated by 이상미. 서울: 두란노, 2007.

Patten, John. *Pastoral Care in Context 목회적 돌봄과 상황.* Translated by 장성식.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0.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2.

Sande, Ken. *Peacemaking for Family 결혼은 갈등이다.* Translated by 이명숙.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4.

Stewart, John Robert. *Together: Communicating Interpersonally 소통.* Translated by 임택균, 서현석 and 김윤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Walzer, Michael. *On Toleration 관용에 대하여.* Translated by 송재우. 서울: 미토, 2004.

[저널]

고형일, 장길상 and 송정수. "셀프리더십이 리더신뢰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적지원관리연구* vol. 18, no. 1 (March 2011): 161-93.

김　경. "대중의 정신건강을 위한 목회상담: 공공신학으로서의 목회신학적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vol. 36 (September 2013): 355-87.

김미혜, 문정화, and 신은경. "베이비부머의 부부 관계특성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예비노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 17, no.3 (October 2012): 213-41.

김상훈. "특집: 가정 예배-성경에서 보는 가정 예배." *상담과 선교* vol. 36 (June 2002): 6-22.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39 (November 2008): 175-205.

김은정. "환대적 학습환경과 기독교교육." *인문학논총* vol. 33 (October 2013): 231-48.

김주연, 진보래 and 김주환. "생활 만족도와 감사 성향이 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 변인으로." *한국언론학보* vol. 58, no. 4 (August 2014): 238-62.

박세경.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vol. 91 (May 2004): 69-84.

백미숙. "의사소통적-치료적 관점에서 듣기와 공감적 경청의 의미." *한국독일언어문학회* vol. 34 (December 2006): 35-55.

백정미. “정서중심 부부치료를 중심으로 부부의 정서적 단절과정과 회복과정 분석.” *신학논단* vol. 91 (March 2018): 43-69.

변화순. “여성노인의 부부 관계.”*노인복지정책연구* vol. 14 (June 1999): 205-37.

서혜란. "관계성 위기 시대의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정보* vol. 58 (September 2018): 139-64.

손운산. “돌봄의 목회 4. 낯선 이를 환대하라.” *기독교사상* vol. 4 (April 2002): 260-70.

신수일. “[책읽기 (2)] ‘가나안 성도’를 통해 본 한국 교회의 민낯: 정재영의 『교회 안나가는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독교사상* vol. 684 (December 2015): 224-32.

양종래. “상담 기능 설교와 그 방법.” *신학과 복음* vol. 1 (October 2016): 39-66.

오규훈. “특집: 한국 문화와 목회상담; 한국인의 정(情)에 대한 고찰과 목회상담학적 함축성.” *목회와 상담* vol. 5 (July 2004): 99-125.

오오현.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공간으로서 환대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vol. 38 (February 2014): 319-45.

오은경. “가족의 구성과 이방인의 문제.” *인문학논총* vol. 40 (February 2016): 53-81.

유영권. “한국 교회의 소통과 공감 능력에 대한 분석과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vol. 42 (June 2015): 47-71.

이인경. “중보기도와 감사.” *새가정* vol. 53, no. 583 (November 2011): 18-21.

이찬석. “몰트만의 삼위일체론과 기독교 예배.” *신학과 실천* vol. 46 (September 2015): 61-87.

이향숙. "가정 예배가 가족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심리상담* vol. 1 (January 2009): 154-78.

이희철. “화해의 현상으로서 환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86, no.1 (April 2013): 299-320.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 삶.”*신학과 목회* vol. 34 (November 2010): 177-209.

정정숙. "특집: 가정 예배-가정에서의 영성훈련." *상담과 선교* vol. 36 (August 2002): 76-99.

최규련.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 12, no. 2 (December 1994): 140-52.

최유진. “레티 러셀의 교회론.” *장신논단* vol. 48, no. 1 (March 2016): 225-52.

한숙자. "스트레스관리와 기독교상담." *복음과 상담* vol. 8 (August 2007): 321-47.

홍이화.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에 대한 돌봄." *신학과 실천* vol. 46 (September 2015): 579-619.

[학위 논문]

박순오, "하나님의 형상론에서 본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목회상담신학적 고찰" PhD diss.,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2.

박하영. "남녀노인의 성역할태도 유형이 부부 관계 만족도와 부부 갈등 수순에 미치는 영향." PhD diss.,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성영모. "은퇴자 부부들의 부부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PhD diss.,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3.

유순희. "황혼이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PhD diss.,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6.

윤덕희.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노인들의 부부 관계에 관한 연구." PhD diss.,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8.

윤창섭.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한 신앙의 질적 성장 연구"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이선미.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PhD diss.,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임송은. "도시 단독가구노인의 부부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부부 관계유형을 중심으로." PhD diss.,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정 준.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한 신앙의 질적 성장 연구."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교, 2013.

최명심.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대처의 매개역할과 의미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PhD diss., 전남대학교, 2009.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경혜, 최현자, 은기수, 이정화, 주소현 and 김주현.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지평(2010-2012)-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1 차년도 보고서" in

*베이비부머 패널연구 심포지움*. 서울: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 & MetLife Korea Foundation, 2011.

[웹사이트]

김경수. "'목회적 돌봄사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기독교연합신문*, September 8, 2010.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946.

박욱주. "신앙으로 인한 가정불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리스천투데이*, July 23, 2017.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2579.

이승규. "목회자 윤리 강령 사실상 유명무실." *노컷뉴스*, June 17, 2016. http://www.nocutnews.co.kr/news/4609591.

이은규. "[특별기고] 목회자에게 쏟아지는 비난들." *기독일보*, March 24, 2016.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7444/20160324/%ED%8A%B9%EB%B3%84%EA%B8%B0%EA%B3%A0-%EB%AA%A9%ED%9A%8C%EC%9E%90%EC%97%90%EA%B2%8C-%EC%8F%9F%EC%95%84%EC%A7%80%EB%8A%94-%EB%B9%84%EB%82%9C%EB%93%A4.htm.

편집부. "예장합동 목회자 윤리 강령 헌의안." *국민일보*, August 21, 20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365557&code=23111212&sid1=kmi.

한국어 위키백과. "정언명령." Last modified April 23, 2017. https://ko.wikipedia.org/wiki/정언명령.

2 차 자료(Secondary Resource)

[한서]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비판적 저항으로서의 인문학적 성찰*. 서울: 동녘, 2016.

강준만.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8.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서울: 두란노, 2016.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정책으로 바라본 여자 남자 이야기.* 파주: 교육과학사, 2010.

_____. *노인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9.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주의 예배학.* 서울: 요단, 2001.

[번역서]

Whitney, Donald S. *Family Worship 오늘부터, 가정 예배.* Translated by 윤종석. 서울: 복 있는 사람, 2017.

[저널]

손성수. "특집: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기독교 대학에서의 환대의 적용 연구." *대학과 선교* vol. 11 (November 2006): 95-116.

이현심. 황혼 이혼 여성노인에 대한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vol. 68 (June 2015): 85-106.

최진봉.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으로서의 예배." *신학과 실천* vol. 52 (November 2016): 7-25.

하재성. "결혼에서의 부부 폭력과 상호성의 원칙." *복음과 상담* vol. 10 (May 2008): 250-271.

[학위 논문]

김순례. "근대사회 형성기 여성적 세계관의 변화양상 연구." PhD diss.,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4.

신송이. "집단이야기치료를 통한 양육초기여성의 정체성 변화 경험에 관한 연구." PhD diss.,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조영순. "노년기 부부의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PhD diss.,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3.

[웹사이트]

서인실. “미주내 한인 교회는 4,096 개.” *크리스천투데이*, January 1, 2015. http://www.christiantoday.us/22457.

신현호. “‘흔들리는 중년’, 어느 나라나 공통된 현상인가요?” *한겨레신문*, February 25, 201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3543.html#csidx352ee81ae13e54c8c76fef4685d03cb.

이유진. “결혼 생활 만족도 여성이 남성보다 낮아... 가부장 문화 여전.” *한국여성신문*, February 9, 201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39.

이정철. “아래로부터의 예배.” *뉴스앤조이*, December 19, 2018.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59.